

文대통령, 4·19 참배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이자 위대한 역사"

[칼럼] 잊지 말고 진실도 규명되어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19 혁명 61주년,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했다'며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우리 가슴 깊이 민주주의를 심었던 날이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굳건한 뿌리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19 혁명 60주년 기념식의 기념사에서 저는 자유와 혁명의 시인 김수영 시인의 시 '풀의 한 구절'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후 94세이신 시인의 부인 김현경 여사께서 '4·19 기념사에서 풀 시를 인용해줘 영광'이라는 감

사 인사글과 함께 김수영 전집과 시인의 사진과 그의 마지막 시가 된 풀시의 자필 원고 영인본 사진을 보내 주셨다"며 "김현경 여사는 올해 시인의 탄생 100돌을 기려 '김수영 문학관'을 추진 중이신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4·19 혁명의 주역들께 김수영 시인의 시 한 구절을 다시 바친다"며 시의 일부를 적었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하여 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노고지리가 무엇을 보고 노래하는가를 어찌서 자유에는 피의 냄새가 섞여 있는가를 혁명은 왜 고독한 것인가를 - 김수영 시 <푸른 하늘을>에서 - 최령수기자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이날 전남 진도 팽목항 앞바다를 찾은 필자의 눈에는 알 수 없는 분노와 믿을 수 없는 사태에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당시 바닷바람이 제법 쌀쌀한 항구에 도착한 현장은 발디딜 틈 없이 취재진들이 모여있었고 '전원구조'라는 한국 언론 역사상 최악의 오보가 나고 국민들은 기사 쓰레기라며 '가레기'라는 신조어가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사고가 난 곳은 전남 진도 팽목항 인근 바다였지만 대부분의 희생 학생들이 이대·던 학교는 단원고등학교다 보니 초기 합동분향소는 안산시 단원구 울림파크기독교 운동장은 전국에서 몰려든 국민들이 분향을 위해 지그재그 줄을 서는 대기 장소로 활용됐다. 하지만 협소한 장소로 주차난과 조문객들의 불편함이 늘어나면서 현재의 화랑유원지로 정부 합동분향소가 이동했다. 불편함의 이유는 훗날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진다. 그렇게 시작된 세월호 참사의 여파는 최소 1년 동안 안산시 전체가 웃음소리·박수소리·환호소리를 낼 수 없는 초상집이나 다름없었고 때때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전국 그 어디에서도 선거운동원 울동조차 볼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선거 풍경이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안산만큼은 몇 년 동안 그 여파가 이어졌다.

경기도, 이재명표 핵심 정책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법제화 시동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령 3건 발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본주택(장기임대형, 분양형)' 실행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책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이 대표 발의한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분양형)' 제정안을 시작으로 2월 25일 이규민 의원(안성)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장기임대형)' 개정안, 4월 14일 이규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분양형)' 개정안 등 기본주택 관련 법안 3건이 계속해서 국회에서 발의됐다. 앞서 도는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서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겠다고 지난해 7월과 12월 각각 경기도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발표한 바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자에게 아무런 자격조건 없이 적정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공간을 공급하는 주택 유형이다. 기본

주택 분양형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무기기간 10년, 주택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환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국회에 제출된 3개 법안은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의 법적 근거 확보와 연결된다. 이규민 의원의 법안 2건은 공공주택 범주에 기본주택 분양형과 장기임대형을 신설하고, 그 성격을 무주택자 대상 공급 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노웅래 의원의 법률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의 기본주택 분양형 정책과 연계가 가능하다. 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입주 자격(소득·자산·나이) 제한이나 임대주택 투기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들이 해소돼 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홍시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법률안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



라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꿀 첫걸음이라 생각해 의미가 매우 크다"며 "보편적 주거권 보장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중앙부처의 진취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법안의 최종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월 국회의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주택'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2월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 개최 및 'GH 기본주택 홍보관' 개관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최령수기자

한 집 건너 한 집이라 할 만큼 희생자가 죽고 연결된 인간관계는 말조심, 표정조심, 행동까지도 조심스러웠다. 행여 상처가 될까. 매년 4월 18일이면 검은색 민장이 시내를 도배하고 화랑유원지 입구에는 빈집사화 공단의 업체들과 기관 단체들의 조문 현수막이 수도 없이 내걸렸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7년, 아직도 진실규명에 대한 한탄한 과정은 여전하다. 낱길 만큼 많은 의혹의 증거들이 묵살당하고 잊지 말자, 잊지 말자 했지만 이제 좀 그만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같은 일이 일마다 더 벌어져야 그만할까. 세월호 참사의 참여 분위기는 지금의 여당 표밭으로 바뀐 지며 야당들의 방언이 충분히 각인 될 즈음 최근 야당 인사들이 슬금슬금 세월호 관련 행사장 주변을 맴돌았다. 어쩌다 세월호 사건이 정권 탄생의 출발점이 되고 당파싸움의 소재로 활용되었을까. 하다가도 표밭갈이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명분과 때를 맞출 수 있다. 물론 적당히 불이 붙으면 토사구팽 같은 모습에 세월호 유가족마저 울분을 토하며 진상규명에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 '7주기'를 하루 앞둔 어제도 유가족들은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재향고에 나섰다. 15일 오후 서울고검의 세월호 관련 고발 사건 항고 기각 처분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고소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 재정 신청서를 냈다. 진실규명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 어떤 배후 이든 몇 십 년이 가고 몇 백 년이 가도 시간과 무관하게 언젠가는 진실이 꼭 밝혀져야 한다.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월호 사건은 국가의 수치이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차단 문제이므로 꼭 밝혀져야 한다. 안산과 진도 팽목항을 다니며 보고 듣고 쓰

박영갑김석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영덕군의회, 개원30주년 기념식 개최

소병훈 의원, “안전모 쓰는 데 20년, 안전대 착용하는데 20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군산대, 한국건설안전학회) 사회로 △박문서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박무일 고문(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유형수 회장(철근콘크리트 소장협의회) △최명선 실장(민주노동당 노동안전보건실) △한명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종일 과장(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문서 교수는 ‘소규모 건설현장 사고의 근본 원인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란 발제에서 “건설현장의 95% 이상이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진행하며,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명이 존재한다”며, “발주처의 책임·감독 강화로 시공자의 불법하도급 등을 감시하고, 안전관리 평가지표 개선을 통해 입찰 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또한 “소규모 공사 사망사고의 원인은 실제 현장이 소규모라서 아니라 근로자 대부분이 일용, 임시근로자이기 때문”이라며, “근로자에게 현장 위험성을 알리는 기초안전 및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무일 고문은 “아무리 좋은 정

책이나 기법도 현장에서 스스로 하려는 손발이 없으면 사고 예방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안전조직 및 인력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안전관리자는 참모로서 지휘권이 없어 업무추진이 소극적으로 되고 책임만 무거워 이 직책을 기피하고, 대부분 계약직으로 이직률이 높고 마지못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관리자 자격은 정하고 있으나 등급이나 경력이 고려되지 않아 자격만 가지면 선임할 수 있어 사업주들은 경력이나 능력보다 임금이 적은 쪽을 선택하게 되어 현장의 실무경험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고문은 또한 안전관리조직이 안전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환경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여 전문화된 부서에 배치하고, 전문직으로서 직위와 예우를 보장하여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이런 경력자들이 장차 컨설턴트 또는 손해보험업계로 진출하는 등 장래가 보장되면 동기부여가 되어 선망받는 직종이 되고 안전관리가 활발 살아나고 복지사회를 앞당기는 역군으로 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심규범 센터장은 토론에서 “연간 생성·소멸된 신규공사장 수는 약 74만 79만여 개소로 추정되며, 2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98%를 차지한다”며, “공사현장 발

굴과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 센터장은 “소규모현장은 이동이 잦고 현장수도 많아 현장 단위 접근으로는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단위 접근 → 초기업단위(건설산업 차원) 접근’을 통한 보완적 대책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유형수 회장은 “소규모현장은 건축주가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자이며 설계한 곳에서 형식적인 감리를 하다 보니 본인이 바로 감리자”라며, “안전관리비 지출이나 안전관리를 회사에서 하게 되는데 일부는 소장들에게 떠넘기기 때문에 겨우 인건비만 맞추어서 작업해 안전관리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며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유 회장은 “소규모 현장일수록 입찰 전에 세밀하게 작성된 ‘시공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 그 매뉴얼의 절차에 맞추어 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고, 각종 위험한 특정 부위 공사는 “위험성 평가”를 실제 작업 구간에서 실천하게 해야 하며 “아침체조”나 “위험예지훈련” 등도 대형현장처럼 실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선 실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건설업 전반의 근본 대책과 소규모 건설현장 집중 대책이 같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건설안전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시행 △건설업 원·하청

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화, 사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 권한 대폭 확대 등 노동자 참여 전면 확대 △이주 노동자 안전교육과 재해예방 대책 전면적 시행 △지자체, 노동부, 국토부의 건설현장 안전대책에 대한 협업과 역할 정리를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건설현장은 안전모 쓰는 데 20년 걸렸고, 안전대 착용하는데 20년 걸렸다고 말할 정도로 안전이 취약하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한다.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지식이 입법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군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뒷받침되었기에 개원30주년 맞이

영덕군의회가 지난 4월 15일자로 개원 30주년을 맞이했다.

1991년 4월 15일에 출범한 영덕군의회는 현 제8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지역발전과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앞장서 왔다.

군의회는 지난 의정 30년 동안 군정의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마다 군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며 영덕군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군의회는 이날 개원 3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제276회 임시회 일정을 마친 직후 코로나19로 인해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는 생략하고 본회의장에서 조촐하게 기념촬영을 하는 것으로 개원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의원들은 ‘군의회 개원 30주년의 역사적인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감개무량하다고 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의회가 온전히 30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개원 30주년과 더불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되면서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가는 초석이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하병두 의장은 개원 축하 메시지를 통해 ‘영덕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며,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난 30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며 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이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세기/기자

윤준병 의원,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경청 위해 ‘국회의원 윤준병에게 전하는 쓴소리의 장’ 개설!

윤준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주년을 맞아 본인의 의정활동을 비롯해 지역 정책과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온라인 홈페이지에 ‘쓴소리 게시판’을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쓴소리 게시판’을 신설한 윤준병 의원은 “지난 해 4·15 총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국회의원으로써 지역과 민생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1년 동안 주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지만, 주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회고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지역과 민생을 위한 주민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쓴소리와 회초리를 겸허히 받고자 ‘국회의원 윤준병에게 전하는 쓴소리의 장’을 운영한다”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소통 창구로서 ‘쓴소리 게시

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게시판을 통해 들려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 주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주전자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쓴소리 게시판’은 윤준병 의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실명과 직명을 선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윤준병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견뿐만 아니라 입법 및 정책 제안을 비롯해 지역 현안, 사회적 이슈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 없이 기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시판을 통해 전달된 민원과 제안 사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매주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들과 회의 등을 통해 처리 및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 및 정책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낮은 자세로 일하는 국회의원 상(狀)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광수/기자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 토론회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은 4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임·(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동물권행동카라가 공동 주관한다.

지난해 10월부터 고병원성 AI가 야생조류 감염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확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올해 3월 1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103건 검출되었고, 산란계, 육계, 종계, 육용오리, 관상조 등 총 2,90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되었다.

그런데 당시 정부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한 가축방역 정책이 논란이 되었다. 전염병이 발생한 곳 반경 3km 내에 모든 농가에 예외 없이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렸는데, 농가의 형태, 환경,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조치로 ‘살처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업·환경·가축방역·동물보호 전문가 등이

모여 무분별한 살처분 집행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근형 소장이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고, 이어서 강원대 함태성 교수가 ‘가축 살처분 제도의 법적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이어질 토론회에는 단국대 윤주이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재호 산안마를 주민대표, 안두영 대한양계협회 채란위원장, 윤종웅 한국가금수의사회 회장, 김현지 동물권행동카라 정책실장,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홍기성 농림축산식품부 AI 방역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토론회 당일, 현장의 목소리를 전

달해 주실 화성시 산안마를 주민분들을 포함한 많은 농장 관계자분들께서 살처분 조치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제는 농가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지난주 예방적 살처분 제도를 명확히 하고 살처분 유예 요건을 구체화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될 대안에 귀 기울여 상식적이고 효과적인 가축방역을 위한 후속 정책 마련에 거듭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출입할 예정이며, 발열 점검과 좌석간격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 : 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부회장 박유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 최재은
정신보 보호 책임자 발행인: 최수진

대표전화: 1899-9659 e-mail: 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부: 내선 (112) 문화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서울.가50146 사회부: 내선 (113) 부동산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관리장령을 준수한다 경제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1899-9659 스포츠부: 내선 (115) 지방부: 내선 (119)
팩스: 02) 2612-2959 구독신청, 배달안내: 1899-9659 구독료: 월 15,000 1부 800원



화성 태안3지구 우미린 센트포레

정헌을 익산시장, 생생 소통행정 '호평'

정헌을 익산시장이 코로나19를 뚫고 진행된 연초 소통 행정이 생생한 현장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장장 3개월간 진행된 대장정은 코로나19로 대면 간담회가 어려워진 것을 대신해 정 시장이 직접 일일 읍면동장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마련하면서 공감을 넘어 감동을 줬다는 평가다.

올해 진행된 정헌을 시장의 읍면동 연초 방문은 조금 특별했다. 매년 실시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민생 현장 속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인 '1일 읍면동장제'를 도입했다. 정 시장은 지난 2월 2일 합읍읍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29개 읍면동을 한 곳도 빠짐없이 순회하며 민생을 살폈다.

이번 1일 읍면동장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소한 민원 하나까지 꼼꼼히 살피고 장기적으로 '주민 중심'의 시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행보였다. 특히 정 시장은 보다 많은 주민들과 호흡하기 위해 때로는 도보로, 때로는 관용 트럭을 활용해 직접 골목골목을 누비며 현장을 찾았다.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힘썼다.

올해 1일 읍면동장제 시행으로 29개 읍면동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안된 민원은 546건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고충이 부쩍 증가했다. 정헌을 시장은 주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매주 진행하는 간부회의에서 제각각 애로사항을 챙기며 주민들이 지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제기한 공공분야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민원은 전 부서와 협의해 적극 반영하기로 했으며 카드 수수료 감면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질제된 한복특화거리를 활성화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에 한복거리 특색에 맞는 거리 조성과 노후 가로환경 정비, 적극적인 홍보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가드레일이나 도로 LED 보안등 설치, 주차난 해결 등 접수된 다양한 생활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즉시 처리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지역 농산물 판로 확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정비, 교통소외지역 행복콜택시 지원, 산단 분양 대금 납부 부담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건의사항 별 관리대장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내 해결이 힘든 사안은 시급성,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보고회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체계 구축으로 민원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해결된 건의사항은 단계별로 주민에게 내용을 알리며 소통할 예정이다.

정헌을 시장은 읍면동 현장을 찾을 때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민생을 살폈다. 거동이 불편해 바깥출입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 장애인 세대를 일일이 방문해 그들의 삶의 고충을 함께 나눴다.

차가운 바닥에서 얇은 이불에 의지해 생활하는 가정, 창고를 개조



해 생활하는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정,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교육을 이어가기 힘든 조손가정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 확인했다.

9명의 자녀와 거주하며 생활고를 호소하는 다자녀 가정에 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다문화 이주여성에게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소개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졌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해 도움을 주기로 했다.

시는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에 나눔곳간을 활용한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나갈 방침이다.

정헌을 시장은 3개월간 진행된 1일 읍면동장제를 계기로 주민들과 소통을 확대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1일 읍면동장제'에서는 지역 곳곳에서 주민들의 애정이 듬뿍 담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와 교량 설치, 농로와 마을 안길 정비, 방범용 CCTV 설치 등 생활 환경 개선 의견부터 주차난 해결을 위한 1시간 제한 출퇴근 운영, 폐선 부지 활용방안, 미륵산 명품 등산로 조성 등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 읍면동의 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시의 정책 방향이 한층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 철학을 실천하고 주민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나갈 방침이다.

정헌을 시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민원사항을 신속히 검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보다 낮은 자세로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 다산동 주상복합건물 화재 관련 남양주소방서 격려 방문

15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최근 다산동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화재 진압에 힘쓴 남양주소방서를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발생한 화재는 오후 4시 29분 화재 발생 신고 접수 이후 10시간 만인 11일 오전 2시 37분 완전 진화됐으며, 이번 화재로 인해 42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날 조광한 시장은 평내동에 소재한 남양주소방서를 방문해 김병진 서장을 비롯해 빠르게 확산된 불길 속에서 생사를 오가는 사투를 벌이며 화재 진화와 인명 구조에 힘쓴 소방관들을 만나 감사를 표했다.

조 시장은 "이번 화재는 남양주 최대 큰 불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상황을 알린 우리 시민 의식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소방서를 비롯해 의용소방대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의 대응을 해주신 것에 시장으로서 감사드린다."라며 "그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중앙 표창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상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시장은 함께 남양주소방서를 방문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에게 "향후 재난 발생 시 우왕좌왕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에 필요한 물품들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이번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입주민 70여 세대, 230여 명에게 임시 대피 시설 11개소를 제공하고, 오전과 오후 1회씩 일 2회 입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화재 사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정근/기자



허성무 창원시장 "시민의 안전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

16일 국민안전의 날 맞아 기념 메시지 발표

허성무 창원시장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기념 메시지를 발표했다.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된 날이다.

허 시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 7년 전 오늘 대한민국의 바다에서 일어났다"며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사태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맞아야 했다"고 세월호 참사를 회상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에 우리 시도 시민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매사에 임하고 있다"며 "유례가 없이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허 시장은 끝으로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방역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보건소를 비롯한 창원시 재난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방역 관계자들과 시민 모두에게 "조금만 더 힘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다음은 허 시장의 메시지 전문이다.

2014년 4월 16일.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정상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7년 전 오늘 대한민국의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사태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맞아야 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가슴속에는 그날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가 무능하고 무책임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는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이후 우리 정부는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이와 같은 대형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시민의 안전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매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례가 없이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일상을 되찾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방역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보건소를 비롯한 창원시 재난대책본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을 위해 조금만 더 고생해주시고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힘드시겠지만, 안전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영기/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자율주행 인프라구축 행정적 지원 다하겠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에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밝혔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이날 자율주행 선도기업인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주)를 현장 방문,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주)는 ADAS(전자보조시스템), HUD(증강현실장치) 등의 4차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자동차 솔루션 기업이다.

5년 연속 스타브랜드 대상 수상을 비롯해 코리아IT어워드 수상(2020년),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2020년) 등 유망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이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벤츠, BMW, 아우디 등 세계 유수자동차 기업에 자재공급을 확대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 시장은 자율주행 분야의 인프라 투자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육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 시에서도 자율주행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이 분야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원종균/기자

오산시, 광상옥 시장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천과제 선정' 화상회의 참여

오산시는 지난 15일 광상옥 오산시장이 국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이 주최한 지방정부 실천과제 선정을 위한 화상회의에 참여했다고 16일 전했다.

'탄소중립'이란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억제하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의미로 국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은 국회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기후

구성했으며 광상옥 오산시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방정부추진단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다각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광상옥 오산시장은 '도시가 살아나고 미래를 키워가다'라는 주제로 도시정원 1004 프로젝트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위한 협동조합에 대해 강의를 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워크숍과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안 중 실천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지방정부추진단의 실천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로, 광상옥 오산시장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실천 주제인 시민에 대한 교육 아카데미의 필요성과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녹지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회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탄소중립 실천과제를 마련해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김남주/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 의정부출신 박신영 프로바둑 기사 만나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4월 17일 박신영 신예 프로바둑기사 1단과 만나 프로기사 입단을 축하하고 대한민국 바둑 1인자 계보를 이어나갈 세계적인 기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인자 호원2동 주민자치위원장 외손자인 박신영 프로기사는 2003년생 의정부출신으로 지난 4월 4일 2020 연구생 내신 1위로 프로바둑 기사 입단에 성공했으며, 8세부터 바둑에 입문해 충암바둑도장에서 실력을 키운 수재로 알려져 있다.

이날 만남은 의정부시바둑협회 최영호 회장, 황원순 부회장이 함

께참석했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프로기사 입단으로 시 위상을 드높인 박신영 기사를 축하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박신영 1단은 "고향인 의정부시의 축하를 받아 더욱 기쁘다."며 "마음속에 의정부 출신이란 명예를 걸고 프로바둑기사로서 정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박신영 1단이 대한민국 바둑 1인자 계보를 이어나갈 세계적인 기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의정부시에서 신예 기사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도록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서울중구, "코로나19 퇴원 후 일상복귀, 중구가 돕는다"

중구가 올해 163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와 맨홀을 정비하고 빗물 방수량을 제어하는 원격 시스템을 정밀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올해 보수 또는 교체에 들어가는 하수관로의 총 길이는 10km이며, 중구 전체 하수관로의 5%에 해당한다. 위치는 서울역부터 남대문시장, 명동, 을지로, 다산동 까지 중구 전역에 걸쳐 있다.

하수도는 빗물이나 가정·상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하천 또는 정화시설로 흘려보내는 도시의 정맥과도 같은 시설이다. 구는 지난해 5월 안전진단을 실시해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22개 구역의 노후 하수관로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하수관로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작업을 병행해

시간당 50mm(최근 5년간 중구 최대 강수량)를 넘나드는 기습 폭우가 쏟아져도 막힘없이 빗물을 흘려보내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불량 맨홀로 인해 발생하는 보행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오는 10월까지 581개 하수맨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교체할 예정이다.

빗물 저류조와 하수관로의 수위를 원격으로 감시하고 집중호우 시 수문을 개폐해 시간당 방류량을 조절하는 원격제어 시스템은 오는 16일까지 정밀 점검을 마친다.

최근 10년 이내 침수역력이 있는 51곳은 '침수 취약가구'로 선정하고, 1대 1 전담 돌봄공무원을 배치해 차수관, 모래주머니 등 침수 예방제품을 지원한다. 비상시에 도 지체없이 출동할 수 있도록 긴급 연락망을 갖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중구는 이런 발빠른 노력에 힘입어 2017년부터 4년 연속 침수 피해를 단 한건도 입지 않은, 서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자치구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제철라성 폭우가 빈번히 일

어나고 있는 지금, 한 발 앞선 대비만이 주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며, "집중호우에도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 없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올 여름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성동구,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와 미디어 봉사단 양성 위한 MOU 체결

이달 13일 시청자미디어재단, 성동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MOU 체결

서울 성동구는 지난 13일 (사)성동구자원봉사센터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와 미디어 봉사단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성동구청 전략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배문찬 성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류위훈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장이 참석, 구는 이번 MOU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로부터 미디어 봉사단 양성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류위훈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장은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미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성동구가 미디어

봉사단을 성공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배문찬 성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와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한 새로운 주민참여 미디어봉사 영역을 구축하게 됐다"며 "향후 장원을 희망하는 우수 활동가 및 단체의 스타트업 지원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미디어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성동구 자원봉사자들이 질 높은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용산구, 백신접종 안내 로봇 '호응'

15일 개소 구 백신접종센터에 투입

서울 용산구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시작한 가운데 센터에 투입된 민원안내로봇 '용봇(Yong Bot)'이 주민 호응을 얻고 있다.

용봇은 '용산구청 제1호 로봇 공무원'이란 뜻이다. 직책은 주무관, 업무는 내방객 발열체크와 민원 안내 등이다. 주로 백신을 맞기 위해 내방한 주민들 발열·마스크 착용 여부를 살피고 이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잘 착용하세요" 같은 안내 멘트를 내보낸다.

또 내방객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센터를 돌며 재미난 춤을 추거나 터치스크린 모니터(11.6인치)로 백신 접종, 구정 안내 동영상 등을 보여준다. 유튜브를 통해 인기 있는 공연, 뉴스 영상도 선보이고 있다.

대화도 나눈다. 화면에서 마이크(음성 입력) 아이콘을 누르고 질문을 하면 기본적인 답변이 이뤄진다. 단 아직 운영 초기 단계라 응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구는 지속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입력, 내방객과 로봇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조지향단 방침이다.

용봇은 1회 충전으로 8시간 정도 작동한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

기로 이동, 스스로 전기를 재충전할 수 있다.

15일 센터를 찾은 한 주민은 "4차 산업혁명이나 AI 같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민원을 안내하는 로봇은 처음 봤다"며 "세상이 정말로 빨리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구는 향후 2~3개월 간 센터에서 용봇을 운영, 2층 종합민원실로 이동시킨 뒤 본래 역할인 내방객 민원안내로 용도를 바꿀 예정이다.

구 백신접종센터는 용산아트홀(녹사평대로 150) 기획전시실에 위치했다. 예진표 작성·대기, 전산 확인, 예진·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공간 등으로 나뉘며 전체 1150㎡ 규모다.

센터는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에 운영한다. 실제 접종 가능 시간은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이다. 점심시간(낮 12시~오후 1시)에는 접종하지 않는다.

운영 인력은 42명. 의사 4명, 간호사 8명, 행정지원인력 30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접종 대상은 용산구민 중 접종 동의자다. 정부 방침에 따라 만75세 이상 주민을 우선 접종, 하반기부터 18세 이상 전 구민 접종을 이어간다. 1일 접종 가능인원은 600명이다.

구는 지난 12일 육군제3537부대

3대대,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장과 센터 경계협정을 맺기도 했다. 우발 상황이 생기면 구·군·경·소방이 함께 조치에 나선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상으로 구 백신접종센터 운영을 시작했다"며 "주민들이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접종할 수 있도록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동대문구, 청량리 집창촌, 흔적까지 역사 속으로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청량리4구역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 결정

동대문구는 청량리역 일대의 집창촌 보전계획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과거의 부정적인 역사적 산물로서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끝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라는 성과를 거뒀다.

청량리 집창촌은 한 때는 200여 개의 성매매업소가 모여 있던 곳으로, 미아·용산·영등포 등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집창촌으로 꼽혔다.

변화되는 시대 흐름에 맞춰 동대문구는 그동안 청량리 집창촌 일대의 흔적을 지우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강북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청량리4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에 40,000㎡규모로 지하7층~지상65층의 4개 동 아파트 1,425세대와 오피스텔,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 등 각종 상업시설과 주거시설, 공원 3개소 등을 조성하고 7차로 도로를 확장하는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에서 "청량리4구역 일대가 과거 40년 간의 집창촌이었던 만큼 그 형성배경 및 인문·



물리적 현황 등을 포함한 집창촌의 역사를 기록화할 것"이라고 결정되었고, 이후 집창촌 복원과 관련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가 추진되어 왔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청량리4구역 입주예정자는 물론, 청량리3구역, 동부청과시장 및 인근 오피스텔 등의 입주예정자를 포함한 인근주민들은 주민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반감을 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동대문구의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최종 심의에 결과를 반영했고, 집창촌 자리는 이제 설계공모를 통해 공원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집창촌 역사 복원 계획이 수립된 지 9년

만에 얻은 결과다.

구는 이를 통해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대문구에 또 하나의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에 계속해서 집창촌 보전계획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집창촌 보전 대신 공원 조성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강북의 랜드마크 자리 잡을 청량리4구역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4월 22일까지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재열람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의견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에 방문하여 제시할 수 있다.

최만식/기자

신월여의지하차로 개통, 여의도~신월IC 8분 만에 주파

장상기 의원, "서남권 발전 견인하는 교통·녹지축 될 것"

여의도와 신월IC 구간을 지하로 관통하는 '신월여의지하도로'가 16일 0시 개통됐다.

이에 따라 신월IC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출퇴근 통행시간이 종전 32분에서 8분으로 단축된다.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왕복 4차로, 총연장 7.53km의 국내 최초 도심 내 도심 지하터널로, 국회대로 지하 50~70m 깊이에 뚫렸다.

소형차 전용도로로 너비 1.7m, 높이 2.0m 이하인 승합차까지 통행할 수 있으며, 통행요금은 2,400원이다.

도로 상부에는 2025년까지 광화문광장의 5배인 약 11만㎡의 친환경 녹지공간이 조성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생활환경이 한층 쾌적해진다.

개통식은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 신월여의지하도로 진출구에서 열렸다.

개통식에 참석한 장상기 의원은



"2015년 10월 착공 이래 5년 6개월 만에 드디어 도로가 뚫려 감개 무량하다"며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상부 공원이 동서 교통축과 녹지

축이 되어 서울 서남권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광수/기자

영등포구, "지방세 환급금 1억 5100만원 찾아가세요"

5.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총 1억 5천 1백만 원

영등포구가 오는 5월까지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서며 납세자의 환급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지방소득세 국제경정, ▲이중납부 등 다양한 사유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구는 매년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며 환급 추진에 힘써왔으나, 미환급금의 대부분이 소액으로 납세자의 착오, 관심부족, 주소불명으로 인한 연락 두절로 안내를 받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등포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3월 말 기준 총 3,272건으로 약 1억 5천 1백만 원에 달한다.

이 중, 5만 원 이하의 미환급 건수가 총 2,973건으로 전체 점유율의 91%를 차지하며, 소액 환급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미환급자의 성명, 주

소지 등의 정보를 현행화하고 오는 5월 31일까지 환급 일정, 방법이 기재된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며 환급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별 내역은 서울사이텍스 홈페이지(etax.seoul.go.kr)와 정부 24(www.gov.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확인 및 지급청구까지 가능하며, 영등포구청 징수과로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는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를 운영한다.

기부한 환급금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용도로 쓰여지며, 기부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관계자는 환급금이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입출금기(ATM)를 통해 환급되는 경우가 없으니 납세자들의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권리가 소멸되니,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납세자 권익과 재산권 행사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일제정리와 소액 환급금 기부제도 운영에 힘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현일/기자



iH공사, 환경보호 활동으로 사회공헌에 앞장서

Go Green! 식수 행사 및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업무협약 체결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식목일과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을 펼쳤다고 15일 밝혔다.

공사의 대표적인 환경보호 활동인 Go Green! 행사는 연수영구입대아파트에서 15일 진행되었다. 입대아파트 입주인, 관리사무소, 연수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나무 2,000본을 심으며 푸른 인천 만들기를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다.

행사 때 사용한 나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화훼농가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는 공사의 모습이 돋보였다. 이 외에도 공사는 팽이부리마을

보금자리 주택 일대 정화활동을 진행, 깨끗한 지역사회 만드기에 보탬을 보였다.

한편, 같은 날 공사는 환경 NGO 단체인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협약을 맺은 양 기관은 지역사회 환경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였으며, 환경보전 및 시민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활동에 기관의 역량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하였다.

양 기관은 오는 17일 장수천 주변 환경정화, 생태체험 활동을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공사의 사업 특성상 환경보호 문제는 외면



할 수 없는 중요한 이슈이다. iH공사는 이번 활동을 초석삼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인천시민들과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중남/기자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동물, one(동물과 하나되다)' 참가자 모집

인천 미추홀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다음달 29일까지 인천과 서울, 경기 지역 14~19세 청소년 20명을 대상으로 '동물, one(동물과 하나되다)'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인 '동물, one(동물과 하나되다)'은 반려동물과 관련한 캠페인 활동과 재능 기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상황을 위해 비대면과 대면 방식의 활동을 혼합해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동물을 사랑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11월까지 10회에 걸쳐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과 외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변재현/기자

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동물, one (동물과 하나되다)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사랑하고 인식 변화 계선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열정기반 청소년을 찾습니다

모집대상: 인천·서울·경기·대전·충청·전남·전북·경남·대구·부산·제주 14세~19세 청소년 20명

신청기간: 2021. 4. 14(수) ~ 5. 29(토)

사업기간: 2021. 6. 5(토) ~ 11. 6(토)

참가비용: 무료

활동장소: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및 외부 (지역, 부평역 등, 온라인)

신청방법: 1. 수련관 홈페이지(http://www.kyoyun.or.kr) 2. 공모서(신청서) 작성 후 작성 3. 제출

문의처: 032-881-5372 kyoyun@kyoyun.or.kr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강화군, 고추건조기 신청 농가 빠짐없는 통큰 지원

농가 맞춤형 지원, 고품질 강화섬고추 경쟁력 향상

인천시 강화군이 고품질 강화섬고추의 생산·유통을 위해 고추 건조기와 세척기를 확대 지원한다.

고추건조기·세척기 지원사업은 농협과 협업으로 지역 내 고추재배 농가에 청결한 고품질의 건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건조기와 세척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월 건조기·세척기 신청을 받아 당초 예측 수요 400대를 넘는 720대를 신청받았다. 이에 지난달 유천호 군수와 관내 농·축·수산업 분야 조합장과 모여 농민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차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2억 2천2백여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고추건조기를 신청한 전체 농가에 대해 이달 중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고추건조기를 지원받은 내가면의 한 농업인은 “고추 건조기로 고추 수확철 발생하는 장마와 태풍 피해로부터 건조 생산 여건을 개선하고 일손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지난 몇 해동안 긴 장마, 태풍, 병해충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농·축·수산업 분야 조합장과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동구, '스마트도시서비스시범사업' 공모 선정

'AI 로봇을 통한 스마트한 지역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시비 2억 원 확보

인천 동구는 인천시의 2021년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 사업 공모에 'AI 로봇을 통한 스마트한 지역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이 선정되어 시비 2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의 도시문제 해결이나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한 주민·민간기업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스마트도시 솔루션의 도입을 통해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에 구에서는 아동친화도 조사의 시민·교사·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아동의 권리 보장 및 돌봄 강화와 디지털 뉴딜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한 돌봄으로 아동이 행복한 인천 동구”추진 원년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아동에게 꿈을 주는 동구를 위한 새로운 변

화를 시도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AI 로봇을 통한 스마트한 지역돌봄 시스템 구축” 사업은 인공지능 돌봄 로봇에 어린이 맞춤형 콘텐츠를 삽입(동화, 동요 등)하여 로봇 200대를 취약계층 어린이 대상 배부(개인 돌봄), 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배부하여 기관 돌봄(관리교육, 안전 교육 등) 시행, 향후 동구 자체 강사 인력을 통하여 AI로봇을 교구로 활용하여 아동권리(인권)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구형 아동친화 시책 사업이다.

AI(인공지능) 로봇에는 인공지능 음성인식기술(목소리 인식, 감정상태 감지 및 분석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대화내용 분석, 어린이와 교감 형성), 통합관제시스템(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스마트도시 기술이 사용될 것이며, 이를 통해 ICT 기술, 감성대화를 통한 마음 건강 돌봄, 아동에게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가능한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술(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원근 동구 교육아동청소년실장은 “코로나19 확산, 빈번한 아동에 관한 사건 발생 등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 돌봄의 필요성 증대되고 있어 동구에서는 기존의 대면중심, 단편적 서비스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돌봄+안전에 관한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AI 로봇(애착인형 형태)을 매개체로 아동친화적 콘텐츠를 담은 지역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구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으로 新 어린이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랑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컨설팅 지원...26일까지 모집

경기도 내 중소 중견 기업 10 개사 26 일 까지 모집

경기도와 성균관대-경희대 협력 체 지능형ICT융합연구센터가 경기도 내 중소·중견 기업에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적, 전략적, 사업적 현안 자료와 해결을 위한 것으로 선발된 기업들에게 사업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과 기술성숙화, 사업전략, 마케팅 분야의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성공적인 컨설팅 진행을 위해 진도와 소통정도 등 진행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인력풀 내에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업에서 원할 시 별도 컨설팅 기관 지원도 가능하다.

작년 컨설팅 지원을 받았던 빅데이터연구소 썬가치랩스는 컨설팅

가 보유한 영상분석 개발도구와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품질 오류 분석 기술을 확보하고 제품 경쟁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교육 및 스마트교구 등 교육 관련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도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차 후보가 선정되면 수행계획서를 접수받아 컨설턴트 선정 및 최종심사를 진행해 10여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지능형ICT융합연구센터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은 뒤 작성해 오는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능형ICT융합연구센터는 성균관대·경희대 컨소시엄이 주관해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핵심 정보통신기술(ICT) 연구와 중소·중견기업 인재양성, 사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수/기자



구리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지 선정 공모 신청

경기도 균형발전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위치와 접근성 등 환경 여건 강조

구리시는 지난 12일 경기도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에 위하여 주사무소 입지 선정 공모 신청서를 최종 제출했다.

구리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사업이 제한되어 자생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가 절실한 입장이다.

이에 구리시는 경기도 정중앙에 위치한 수도권 접경지로서 구리-안성, 구리-포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지하철 8호선·6호선 및 GTX 노선 등 사통팔달 교통망이 연결되어 서울 중심부는 물론 경기도 전역을 가장 빠른 시간에 이동 가능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지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가칭)한강변 도시개발사업,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플랜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유치를 위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모바일 전화

서명부, 도민 청원서를 첨부했다.

안승남 구리시장, 윤호중 국회의원, 김형수 김형수 구리시의회의장, 광경국 구리시경제인연합회 회장이 공동 주자로 시작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 동참 챌린지’는 전 시민에게 전파 확산되어 공감대가 형성되는 기반이 되어 구리시새마을지회, 구리시바르게살기협의회 등 각종 단체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본사를 방문하는 등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유치하기 위한 전 시민의 참여와 연원을 이끌어냈다.

각종 봉사단체 및 시민단체는 물론 구리시공무원노동조합, 구리농수산물공사 직원들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구리시 유치 동참에 적극 참여했으며, 임장열 경기도의회 도의원도 경기주택도시공사를 방문, 공사 사장에 구리시의 지역적 특성과 공사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구리시가 유치하는데 힘을 모았다.

특히 구리시·구리시의회의 공동성명서 발표와 구리시의회의 경기주택

도시공사 유치 건의문을 공모 신청서에 첨부하여 구리시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는 지리적 위치와 접근성 등 환경 여건이 매우 우수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성공적으로 구리시에 유치하여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도시의 자생력을 회복하는 경기도 균형발전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4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오는 5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입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의왕시, 제1회 의왕시 아동권리 증진사례 공모전 개최

의왕시는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제1회 의왕시 아동권리 증진사례 공모전 ‘아동권리의 왕은 우리!’를 개최한다.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아동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왕시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도 영유아 등 미취학 아동도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하게 됐다.

의왕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동권리를 발휘하거나 존중한 사례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달 27일까지 사전 신청접수를 받은 후 사전접수를 한 어린이집에 한하여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별도로 사례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제출된 사례는 영유아 및 아동권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4대권리(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를 기반으로 주제 적합성, 참신성, 중장기적 적용가능성 등을 두루 평가하여 총 4개의 수상기관을 결정한다. 시상과 작품 전시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제4회 의왕시 레지오 기록작

제1회 의왕시 아동권리 증진 사례 공모전
아동권리의 왕은 우리!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기본권이 발원·유연한 사례
과정 및 어린이집 공간 구성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이야기
지역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의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이야기
아동이 부모의 주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은 이야기
일상생활(영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의견에 반영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한 이야기

접수대상	접수방법	신청접수	결과발표
의왕시 관내 어린이집	온라인 이메일 (awcare@naver.com)	2021년 4월 13일 (화) 9:00 ~ 4월 27일(토) 18:00	2021년 9월 30일(목) 14:00 홈페이지 공지

의왕시장상 (1개년) / 시민회의장상 (1개년)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상 (2개년)
* 상무대원은 홈페이지(www.awcare.or.kr) 참조

시상&전시 | 11월 18일(목) ~ 11월 20일(토) | 070-7707-2687

업 전시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유복림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동권리의 본질은 아동권리도 성인의 권리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공모

전을 통해 의왕시의 우수한 보육의 질과 아동인권 존중 수준을 생생한 사례로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종균/기자

시흥시-(사)글로벌생명나눔, 관내 취약계층 지원 업무협약 체결

시흥시는 (사)글로벌생명나눔과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13일 체결했다.

(사)글로벌생명나눔은 개발도상국가의 의료 및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고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라오스,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등 개도국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의료물품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흥시는 손세정제, 소독제, 어린이영양제, 구급함 등을 포함해 6,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았다.

손세정제, 어린이영양제 등은 보건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급함(기본상비약)은 관내 취약 경로당 50개소에 지원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사)글로벌생명나눔은 시흥시와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적극 지원하며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남 (사)글로벌생명나눔 대표는 “시흥시와의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우리 법인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법인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은 상

황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시흥시 취약계층 가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매우 감사드리며, 필요한 가구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정부/기자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몰 | 검색

진도아리랑 |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

광명시, '어린이체험놀이터'개장, '짚라인, 트램펄린...어린이들이 원하는 놀이시설 한가득'

도덕산 캠핑장 입구, 3,478㎡부지에 체험형 놀이터 조성

광명시 도덕산 캠핑장 입구에 '어린이 체험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광명시는 15일 오전 박승원 광명시장, 시의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을 열고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놀이터가 생긴 것을 한 마음으로 축하했다.

시는 도덕산 캠핑장 입구에 있던 기존 양묘장을 이전하고 3,478㎡부지에 예산 9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체험놀이터를 조성했다. 놀이공간에는 짚라인, 트램펄린, 모래놀이, 물놀이 펌프, 슬라이드, 건너기 시설물 등 15개의 체험형 놀이시설이 있으며, 어린이들의 휴식을 위한 파고라, 평상, 의자 등 휴게시설도 갖췄다. 또한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중형버스 2대 포함해 차 2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 체험놀이터는 획일화된 놀이터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에게 창의적인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의미가 있다.

광명시는 어린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듣기 위해 2019년 7월 하안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8월에는 학부모 160명 및 어린이집 교직원 214명을 대상으로 놀이 시설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9월에는 '우리 동네 놀이터 함께 만들어요!'를 주제로 놀이터 조성에 관심 있는 청소년, 보육시설 원장, 학부모 등 100여명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체험놀이터 주변에 도덕캠핑장이 있어 가족단위로 방문한 시민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연친화적인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며 밝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파주시, 5월 10일부터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파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위기지원 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접수한다.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파주시가 5월 3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지원하는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 대비 2021년 1월~5월 기간 중 소득 감소가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재산기준 3억5000만 원 이하 가구다.

신청이 가능하다.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현장신청의 경우 세대원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급액은 가구원수 무관 1가구 50만원(1회 지급)이다.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6월 21일 신청인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은 생계지원금 50만원 중 20만원만 지급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해 한시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수원시, 조원고·조원중·수일고 등학교길, 두 배로 넓어졌다

수원시, '조원고~수일고 보행환경 개선사업' 완료... 학교 앞 보도 폭 2m에서 4m로 확장

폭이 좁아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의 보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수원 조원고·조원중·수일고 앞 보도가 두 배로 넓어졌다.

수원시는 조원고·조원중·수일고 일원 도로와 인도를 확장하고, 보행로(데크)를 설치하는 '조원고~수일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16일 완료했다.

조원고·조원중·수일고 앞 보도 폭은 2m에서 4m로 확장됐고, 길이 80m·폭 3~4m 보행로(데크)를 설치했다. 주안말사거리에서 수일고등학교에 이르는 길이 335m 도로는 폭을 14.6~23m(기존 12~21m)로 확장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시스템(1개소), 도로표지판(빛을 받으면 반사해서 길을 알려 주는 장치, 385개)도 설치했다.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해 10개월여 만에 완공했다. 보상비 7억 7000만 원, 공사비 11억 원 등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했다.

조원고등학교, 조원중학교, 수일중학교는 나란히 붙어있어 등하교 시간에 무척 붐빈다. 세 학교 학생 수만 2400여 명에 이르고, 수일고 바로 옆에는 원아가 180명이 넘는 유

치원이 있다. 보행자는 많은데, 보도가 좁다 보니 등하교 시간에 인원이 몰릴 때는 차도로 걷는 학생도 많았다. 교행 가로수, 전신주가 있는 곳은 보도 폭이 1.2m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조인규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은 "조원고~수일고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학생들이 한결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과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하남시, 올해도 상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사용요금 50% 감면된 고지서 발송



하남시는 오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점포 등을 제외한 전 가구다. 시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5월 고지분부터 3개월 동안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에 따른 감면액(물이용 부담금 포함)은 총 26억 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일부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도 이번 조치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에도 3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해 물이용 부담금 포함 총 20억 5천만 원을 덜어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공기업 소득을 지역사회에 환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민생 안정을 돕고자 2차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가평군, 영연방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행사 맞이 환경정비

가평군청 복지정책과는 영연방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행사를 맞아 12일 가평읍행정복지센터 협조를 받아 영연방 참전비 일원에 꽃모식재 및 제조작업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매년 4월 마지막주를 전·후하여 영연방 4개국(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용사들의 6.25 한국전 참전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개최하는데 올해는 70주년을 맞아 더욱 뜻깊은 행사로 준비중에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참전용사들의 참석이 어려움에 따라 언택트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은 "70주년을 맞이한 영연방 한국전 참전행사에 참전용사들이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가평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하기 위해 라넌쿨러스,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며 전적비 주변 환경정비에 더욱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영연방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행사는 4월 23일 9시 영연방 전적비에서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각국 전적비에서 같은 날 11시 별도의 추모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교육도시



경상북도, 제2기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T/F팀 1차 회의 개최

제2기 위원회 운영계획 등 활동방향 토론.. 싱크탱크 역할 기대

제2기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 출범식 갖고 농정의 최대 현안과제인 농식품 유통혁신을 위해 출범식 이후 처음으로 15일 경북대에서 T/F팀장 회의를 가졌다.

7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은 김재수 위원장(64세, 영양, 동국대 석좌교수)을 중심으로 4개의 팀인 ▷ 농식품 유통혁신 T/F팀 ▷ 농식품 연구개발 T/F팀 ▷ 청년농 및 농어업인력양성 T/F팀 ▷ 건강한 먹거리 생산 T/F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T/F팀의 역할은 유통구조개선, 건강한 먹거리 생산, 유통 취약농가 판로 확대 등 농식품 유통정책 자문 등 미래 경북농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현장 간담회, 농가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한 정책개발을 강화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T/F팀별 활동방향 선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농식품 유통혁신 T/F팀에서는 빅데이터 기반 경북 농식품 유통 구조혁신 전략 구상을 중심으로 농식품 유통 취약농가 판로확대, 농식품 신유통체계 구축,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에 노력하고,

▷ 농식품 연구개발 T/F팀에서는 뉴노멀 시대, 경북 농식품산업의 대응전략을 주과제로 농가실용형 농식품 연구·개발, 농특산물 소포물 통합플랫폼 구축,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지원 등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 청년농 및 농어업 인력양성 T/F팀에서는 경상북도 역기능 실태조사 및 대응전략 개발에 역점을 두고

경북농민사관학교 혁신, 농번기 안정적 인력 지원, 경북형 농촌 일자리 통합플랫폼 구축 등에 관심을 모았다.

▷ 건강한 먹거리 생산 T/F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북형 저탄소 농산물 생산기술 현황 및 발전방향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미래형(다축형) 과일 조성,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육성, 경북형 축산환경 개선 대책 등 건강한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재수 위원장은 “앞으로 도지사 자문기구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여 농정분야 민관 협치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위원회는 T/F팀별 회의와 현장 활동을 통해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제공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품

질 좋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마케팅, 유통, 기업인 등 제2기 위원회에 대한 기대가 크며 민·관 협치(거버넌스) 창구로 물류, 서비스, 소비, 기업 등 시장환경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안목과 경험을 행정에 접목함으로써 관련 정책이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대구 북구청,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실시

대구 북구청은 4월 16일 오전 침산네거리와 칠곡네거리에서 배광식 북구청장과 김한섭 북부경찰서장, 강북·북부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연합회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홍보하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심부 일반도로는 50km/h, 주택가·이면도로 등은 30km/h 이내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여 차 중심에서 사람 우선으로 교통정책의 근간을 바꾸는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 대책으로 4월 17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된다.

“대구 안전속도 5030”은 신천대로(80km/h), 달구벌대로(60km/h), 동대구로(60km/h), 신천동로(60km/h), 앞산순환도로(60km/h) 등 자동

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속도 유지 또는 60km/h 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시부 도로는 50km/h 이내로 제한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면서, “안전속도 5030 시행 초기에는 그동안의 운전습관으로 불편이 있겠지만, 나와 가족, 나아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일상의 교통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북구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며 “앞으로 안전속도 5030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김천시, 올해도 서민경제 회생에 역량 집중

김천사랑상품권 1천억 규모 발행,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김천시는 지난해 코로나19 경제회복과 속에서도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김천사랑상품권을 당초 규모 대비 6배 늘어난 6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카드형 지역화폐를 4월 조기 출시하였으며 연중 10%의 인센티브를 지원했다. 소상공인 특별보증사업도 기초지자체 중 최고 수준인 500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상대적으로 관내 자영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최근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의 시작으로 경제 회생의 긍정적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실제 체감되는 자영업자의 생계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김천시는 올해도 민생경기 회복을 시정의 주요 추진과제로 설정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회생에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김세기기자

업체당 2천만원까지, 이자차액은 3% 범위 내 2년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고, 관내 취급 은행 8개소(국민, 농협, 대구, 신한, 기업, 우리, 하나, 김천농협)를 통해 용자를 받으면 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사업 참여의 제의 응징이 대폭 완화되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제한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은 누구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시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년도 연 매출 4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수수료의 0.8~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부득이하게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도 병행 운영한다. 온,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건은 향후 국제청 자료 조사를 통해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계좌 지급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코로나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올해 국·도비 약 10억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첫째,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인 중심 프로젝트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2021년도 김천 평화시장이 선정되어 평화시장은 2년간(2021년~2022년) 총 사업비 10억원(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 시장 대표상품과 먹거리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를 개척하고 전

통시장 내 문화콘텐츠 발굴 등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2월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에 이끌어갈 사업단장을 공모에 의해 선발 확정되고 4월부터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평화시장·황금시장 20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약 5억6천만원(국비 2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

전통시장 내 밀집된 개별점포 전선 정비 이외에도 노후되거나 불량인 분전반과 전등을 교체하는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셋째, 시는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경상북도 공모사업인 「골목상권 특별환경개선사업」에 응모하여 올해 황금시장에 사업비 6억원(도비 3억원)을 확보했다. 노후된 황금시장 아케이드 시설을 전반적으로 교체 보수하여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예방한다.

이밖에도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약 3천8백만원(국비 3천만원)을 지원 받아 고객유입 촉진, 매출 증대 등을 위한 홍보 마케팅 행사 및 상인회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활용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국비 확보로 추진중인 평화시장 청년몰 조성사업(15억원), 황금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33억9천만원)도 올해 예정대로 마무리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민이 찾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민 경제 활성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영양군, 관내 초·중·고 졸업생 모두에게 대학신입생 등록금 반값지원!

재단법인 영양군 인재육성장학회는 작년 11월 30일 제26차 정기이사회 회의에서 대학 신입생 장학금 지원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의결하였으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매년 추진하는 장학사업은 올해부터 ▲대학신입생 반값등록금 ▲대학신입생 장학금 2개 분야를 신설하여 지원하는 등 기존 장학제도를 확대 실시하였다.

대학신입생 반값등록금 장학사업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격 실시했으며, 신규 장학사업에 포함한 2021년 장학금 재원은 기탁금과 예·적금 이자 수입 등 관련 예산으로 총 3억 5천 6백만원을 확보하였다.

올해 시행된 신규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관내 초·중·고 졸업자, 관내 고교 졸업자' 출신 대학신입생이며, 관내

초·중·고 모두 졸업한 학생의 경우, 대학 입학 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의 반값(2백만원 한도)을 지원받으며 관내 고교 졸업자의 경우, 성적 제한 없이 1백만원을 지원받는다.

장학생은 올해 신설된 ▲대학신입생 반값등록금 ▲대학신입생 장학금 등 2개 분야를 비롯해 ▲고등학생 장학금 ▲대학재학생(2~4학년) 장학금 ▲대학생 특별(신인) 장학금 ▲특기장학생 ▲우수학교 및 교직원 포상금 7개 분야에서 219명이 선발되어 총 2억 7백만원이 지급되었다.

2021학년도 장학회 주요 사업은 ▲장학사업(3.5억원) ▲초중고 방과 후 학교지원(8.5억원) ▲관내 고등학교 우수 외래강사 채용 및 고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4.2억원) ▲일월산꿈꾸기 학생 야영 지원(0.1억원) ▲과학캠프(0.3억원) ▲인터넷

강의 및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지원(0.6억원) ▲여중군자 장제향여성리더십 교육사업(0.1억원) ▲수비고등학교 통학차량 지원(0.1억) 등이 있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으로 국제교류 사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 애리조나 투산교육청과 협력하여 2021학년 겨울방학 비대면 온라인 영어학습 사업을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14명)을 대상으로 줌(ZOOM)을 통한 화상수업을 시행하였다.

오도창 이사장은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인재육성도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라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교육비 부담을 줄여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지도록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역동하는 상주의 발전 엔진, 시동을 걸다

제8대 상주시장 출범 1주년, 시정 성과와 운영 방향 밝혀

상주시는 16일 민선7기 제8대 시장 출범 1주년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미래 상주 비전 점검 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상주시는 코로나19, 조류독감,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내외적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주 시민과 출향인, 공직자 모두가 지켜왔던 역사도시 중흥하는 미래상주 건설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온 결과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그동안 성과를 발판으로 국가철도망 유치와 고속철 시대 개막, 철도망과 연계한 사통팔달 도로 교통 인프라 확장,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이전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 신 낙동강시대 문화관광 중심 도시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와 콘텐츠 개발 등을 상주 중흥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의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상주시는 이와 관련한 민선8대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먼저 돈과 일자리 활력 넘치는 경제상주 건설이다.

지역의 주력 산업인 농산물 유통과 소상공인의 경영기반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올해 500억 원 규모로 발행하는 상주화폐와 배달앱을 연계해 지역 내 소비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상주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제2일반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R&D, 기자재 산업, 농산물 관련 식품·식자재산업 등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생명장고 스마

트 농업 중심도시 선점이다.

스마트팜혁신밸리를 통한 청년농부 육성과 지역 정착 유도, 실증단지 활용한 투자유치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차질 없는 이전을 통해 상주 농업의 위상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갈 방침이다.

또 축산과 비축산 분야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존하는 축산을 위해 환경오염과 악취 발생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세 번째는 역사와 전통을 품은 문화관광 스포츠 도시 조성이다.

상주읍성 복원, 병풍산·오봉산 고분군 발굴 등 유적 복원과 1만5,000여 점의 고전적 번역작업을 통해 상주의 역사와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낼 방침이다.

시립복합도서관을 만화, 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등으로 특화하고 이를 축제와 지역 산업으로 연계해 관광자원을 할 계획이다.

새로운 트렌드인 비대면 관광 활성화에 발맞춰 백두대간을 비롯해 경천섬, 경천대, 상주보, 낙단보 일대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관광지로 만드는 관광명소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네 번째, 중심예물의 정신이 깃든 시민행복 시민복지 구현이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와 함께 상주시 노인회관 신축, 9988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공설주요공원 조성 등 행복한 노후 지원과 사후 존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분단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출산과 육아·교육 등 시민 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연계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상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다섯 번째는 누구나 살고 싶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다.

북천 명품하천 사업과 남산공원 자연친화적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여가 활동 공간 확충과 함께 양개발 축의 가운데 위치하는 시가지는 올해부터 시작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상주를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로 디자인할 예정이다.

또한, 중부내륙 고속화철도는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올해 안에 기본계획수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고속화철도 역사 개발과 배후 교통망 확충에도 발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시정 운영이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지역과 교육시설의 동반성장을 위한 미래교육지구 조성 지원과 지난 3월 31일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계기로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평생학습도시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동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공직사회의 적극성과 혁신을 유도하고, 투명·공정·정당한 보상에 기반을 둔 인사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할 계획이다.

강성희 시장은 “일 년 전 각오와 초심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상주, 함께 꾸는 경상(慶尙)의 꿈을 실현하는 등 상주를 빛내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양보하면서 품격 있는 새로운 상주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한반식기자

산청군 철쭉 개화기간 황매산 방문자제 거듭 당부

축제 취소...인파 몰릴 땐 출입통제 등 폐쇄 고려



산청군은 16일 봄철 철쭉 개화 기간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황매산의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군은 앞서 매년 4월말부터 5월 중순까지 개최되던 황매산철쭉제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방문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군은 현재 황매산을 폐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철쭉 개화기간 방문객 집중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강화를 위해 출입통제 등 폐쇄 조치를 고려중이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과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방문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연제다행복지구 '찾아가는 수업' 실시

마을교사와 전문강사가 학교로 찾아가 놀이, 체육, 연극 등 체험 수업 진행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은 4월부터 11월까지 연제구 관내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알콩달콩 체험 놀이', '찾아가는 체육 수업', '연극 체험 교실' 등 찾아가는 수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연제다행복지구의 지역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마을 교사, 체육 전문강사, 연극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탐입교사와 협력 수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수업 기회를 갖게 된다.

'알콩달콩 체험 놀이' 수업은 연제구 마을 교사들이 학교로 찾아가 초등학교 1~2학년 128학급을 대상으로 싹뜨기, 딱지치기, 제기놀이, 모듬 씨름 등 전래놀이 체험수업을 학급당 4차시로 진행한다.

'찾아가는 체육 수업'은 빅발리볼, 음악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농구, 추크볼, 킥볼 등 학교가 신청한 종목의 전문강사가 방문해 초등학교 3~4학년 136학급을 대상으로 학급당 10차시로 진행한다.

'연극 체험 교실'은 전문 연극강사가 방문해 초등학교 5~6학년 128학급을 대상으로 연극수업을 학급당 4

차시로 진행한다. 학생들이 연극을 함께 만들고, 짧은 공연을 해보는 체험도 한다.

동래교육지원청은 학교를 방문하는 모든 강사에게 사전 자기진단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안전하게 수업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원숙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코로나19로 학교 밖 체험수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이 수업을 통해 전문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들의 체험영역을 넓혀주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진주교육지원청, 세월호 참사 7주기 "안전주간" 운영

추모공간 운영 및 안전체험 교육으로 안전의식 고취



진주교육지원청은 세월호 참사 7주기를 맞아 4월 12일부터 23일까지 안전주간 운영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념식과 안전주간에는 세월호의 참사를 기억하고, 학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16일 오전 교육지원청 1층 로비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애도하는 추념식을 가졌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추모 묵념, 추모글 남기기 등 행사로 진행되었

다.

박영주 교육장은 추모사에서 "별로 떠난 소중한 우리 학생들을 기억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최우선 역할이며 이를 위해 모든 교직원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교육지원청 직원 80여명은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재난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광용/기자

하동군 공식 SNS 팔로우하고 선물 받자

하동군, 공식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팔로우 인증 이벤트...추첨 통해 상품 증정

하동군은 공식 SNS 운영 활성화에 따른 홍보 전파력 제고를 위해 16~25일 10일간 SNS 팔로우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는 소셜미디어 이용자 누구나 인스타그램(hadong_official)·페이스북(okhadong) 등 하동군 공식 SNS를 찾아 팔로우하고 댓글로 3명 이상 '@친구'를 태그해 이벤트 페이지에 댓글로 제출하면 된다.

하동군은 이벤트 참여자 중 15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추신자 행정과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SNS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소통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살맛나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통영



통영시 고령친화도시 인증 현판식 개최

통영시는 4월 15일 시청에서 『고령친화도시 인증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통영시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진입, 노인 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통영시를 만들고, 세계의 고령화·도시화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WHO(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신청을 하여 올해 2월 가입 인증을 받았다.

이날 현판 제막식에 앞서 고령친화도시 조성 제1기 실행계획 및 21년 시범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을 통해 통영형 고령친화도시 조성 의지를 밝혔다. 5월부터는 어르신과 반려견이 함께 동행 하는 '온정팻 시범사업', 도시락 배달 '온정국

사업', 1-3세대간의 벽을 허무는 '세대통합 청춘마을학교'를 시작으로 12개의 시범프로젝트를 점차 추진할 계획이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WHO 고령친화 회원도시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수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고 WHO의 가이드에 발맞추어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도시정책을 발굴하며, 통영시 노인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위한 물리적·사회적 도시 환경의 재정비와 재설계에 모든 열정과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2023년까지 '살맛나는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실현'을 목표로 8대 영역 60개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통영형 고령친화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강영훈/기자

봉감도전석탑, 고추말리기, 반딧불이천문대, 은행나무, 시서지

풍요로움이
주렁~주렁~
여기는
영양군입니다

의회 **주민에게 믿음 주는**
영양군의의회

곡성군, BTS 한복 디자이너와 함께 곡성기차마을에서 한복패션쇼

17일 심청황후 기차마을로 귀환 주제로 한복패션쇼 개최



오는 17일 전남 곡성군이 BTS 한복 디자이너로 알려진 백옥수 디자이너와 함께 심청기차마을에서 한복 패션쇼를 개최한다.

곡성군은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7일 간 심청기차마을에서 한복문화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한복문화지역거점 사업의 일환이다.

행사 기간 동안 기차마을에서는 세대공감 전통한복 체험관,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체험관,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특히 17일 오후 5시에는 한복문화 주간 피날레격으로 화려한 한복 패션쇼를 선보인다.

한복패션쇼에는 BTS 한복 디자이너 백옥수 작가가 참여해 더욱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옥수 디자이너는 2018년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인 BTS가 그들의 뮤직비디오 'IDOL'에서 착용한 한복을 제작하며 유명해졌다. 한복 디자이너와 K팝 스타의 협업에 "동양적인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대적인 힙한 느낌을 잘 살렸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심청황후! 기차마을로 귀환'을 주제로 백옥수 디

자이너가 만든 40벌의 한복을 만나 볼 수 있다. 기차마을 내에 있는 장미공원 소망정에서 패션쇼가 진행되며, 곡성군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패션쇼 외에도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하다. 기차마을 정문 저잣거리에 있는 세대공감 전통한복 체험관에서는 100여벌의 다양한 한복을 무료로 입어볼 수 있다. 한복 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만든 전통한복과 신 한복을 구경하는 것도 또 하나의 볼거리다.

기차마을 잔디광장에서는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체험관이 운영된다. 한국 복식 전문강사와 함께 궁중 한복 9종에 대해 알아보고, 매듭팔찌 만들기 등 다양한 한복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10여 종의 민속놀이 체험도 준비되어 있어 가족과 함께 즐기기에 좋다. 한복문화주간 만큼 자신의 한복을 착용하고 심청강 기차마을에 입장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행사 담당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한 한복문화주간을 진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사를 통해 우리의 웃인 한복을 즐기는 문화가 활성화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남출.최상홍기자

전남교육청, 교육기관 전국 최초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체결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전남소상공인연합회와 '상생·협력' 다짐



전라남도교육청이 15일 청사 5층 비지니스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전남소상공인연합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석용 전라남도교육감,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임경준 회장, 전남남도소상공인연합회 이갑주 회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 3개 기관은 협약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속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남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 전남업체 제품 우선 구매 및 홍보·교육 △ 전남업체 구매물 향상을 위한 노력

△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 발굴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전남남도소상공인연합회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제품 생산·판매 △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편리한 구매 방식 제시 △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장석용 교육감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개 기관이 뜻을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협약이 체결된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기폭제가 되어 모두에게 '희망'으로 피어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광양시, '아이 잘 키워주는 보육 으뜸 도시' 위상 실현



광양시는 민선 7기 중점시책으로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을 위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들은 만족하는 보육을 목표로 다양한 선진 시책을 추진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아이 잘 키워주는 보육 으뜸 도시'의 위상을 실현했다.

평균연령이 41.8세로 전남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광양은 2017년 7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관이 협력해(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을 설립했으며, 2018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 2018년 2월 '아동여성친화도시' 지정, 2018년 2월 '아동여성친화도시' 지정, 2018년 2월 '아동여성친화도시' 지정 등을 통해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의 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했다.

2019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 보육 관련 국(局) 단위조직

을 신설하는 한편, 2021년 육아지원사업의 거점인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했다.

보육재단은 65억 원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 현재 정기후원계좌(CMS)는 3만 계좌를 초과 달성해매월 1억여 원의 안정적인 기금을 적립하는 재단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우수상 수상, 같은 해에 어린이 통학 차량 간헐 예방을 위한 '잡자는 아이 확인 장치, 쪽쪽이 땀동가' 사업으로 인사혁신처 주관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19년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0년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 분야 정부포상에서 대통령 기관 표창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조기석기자

장성군, 아열대작물·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한다

장성미래농업대학 개강... 아열대작물 재배, 스마트농업 기법 전수



장성미래농업대학이 16일 입학식을 갖고, 올 한 해 힘찬 출발을 알렸다. 장성군 농업인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두석 장성군수와 입학 학생 51명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08년 개설된 장성미래농업대학은 지금까지 154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농업 전문가 육성의 산실이다. 농촌진흥청 주관 농업대학 평가에서 대상(2018년), 우수상(2019년)을 연달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아열대학과'가 개설되어 특히 이목을 끈다. 지난해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에 성공한 장성군은 장성미래농업대학을 통해 지역 내에서 아열대작물 전문가를 육성한다. 교육 과정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아열대작물 정보 공유 ▲아열대작물 재배 동향 분석 ▲현장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6명의 농업인이 참여한다.

함께 개강한 '스마트농업학과'는 스마트팜 관련 시설·품목별 맞춤 상담(컨설팅)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교육 등을 진행한다. 학과생 전원이 강의 내용을 영농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난해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유치로 인해, 장성군은 기후변화 대비 농업인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도시로 각광받고 있다"면서 "장성미래농업대학을 통해 농업전문가로 거듭난 교육생 여러분들이 장성을 넘어, 국가의 미래 농산업을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장성미래농업대학은 학과별로 20회 내외, 100시간 가량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한편, 현재 장성에서는 45농가가 13.3ha 규모로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스마트팜 설치농가는 33농가 15.6ha, 친환경 인증농가는 439농가 496ha 규모다.

오홍곤기자

광주광역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지키세요

제2순환도로 등 소동위주 도로는 60~90km 지속키로

광주광역시와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을 앞두고 시내 도시부 도로 총연장 1866km 중 1466km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교통시설물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km(월요일 6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용도와 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또 광주시내 모든 보호구역(어린이 588곳, 노인 52곳, 장애인 11곳)의 제한속도도 시속 30km 이내로 하향해 교통약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19년 4월 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을 맞은 17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광주시에와 광주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법 개정 이후 기본 및 시설계용역을 거쳐 왕복 4차로 이상 시정로 등 103개 구간 187km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3차로 이하 구성로 등 323개 구간 245km에 대해서는 시속 30km 이내로 하향 조정했다는 내용을 알리는 안내표지판과 도로 표기공사를 실시했다.

또 지금까지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 145개 구역 797km 구간도 제한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안내하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했다.

광주시는 법령 개정에 앞서 237km 구간을 5030구간으로 지정하고 교통시설물을 설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광주시내 전체도로 1866km의 79%에 해당하는 1466km가 시속 50km 이내 속도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 100곳 설치, 옥외 대형전광판 3곳, 시·자치구 옐리베이터에 5030 홍보 동영상 송출 등 시민 홍보를 실시한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안전속도 5030 시행은 그동안 차량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벗어나 보행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영도구에서 5030 속도하향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 24.2%, 보행 사망사고 37.5%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김덕윤기자



광산구 '건강약자 병원동행' 사회돌봄 시동

광주 광산구가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함에도 가족 돌봄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추진한다.

1인 가구 증가 및 초고령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돌봄 체계 마련에 나선 것.

광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 공모에서 '건강약자 안전한 병원동행 휴블런스 서비스(Human Ambulance Service)'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총 23개 지원과제가 선정된 가운데, 광주에선 광산구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국민정책디자인 지원과제'는 국민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국민 참여형 정책 모델'이다. 광산구는 앞으로 시민, 전문가,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디자인단을 구성,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체계를 마련한다.

광산구가 제안한 '건강약자 안전한 병원동행 휴블런스 서비스'는 병원을 자주 다녀야 하지만 돌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병원 동행이 어려운 건강약자를 위한 원스톱 동행서비스다.

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등

전문 경력이 있는 중장년을 '동행 매니저'로 활용, 예방 접종 및 건강검진, 병원 치료, 약국 이용 등 전 과정을 함께 하도록 하는 것. 어르신은 물론 장애인, 만성질환자, 아동 등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9년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육구조사에서 주민 대부분이 1인 가구로 병원 이용 비율이 높아 돌봄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 출발점이 됐다.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거쳐 올해 7월쯤 광산구 지역 내 영구임대 아파트에서 시범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가 힘을 모은다. 광산구는 광산시민수당을 활용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간호

인력 등 10명의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이동 지원을 위한 자원을 연결하고, 전국 최초 민간연대로 출범한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전담인력 교육 및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광산구는 이 사업을 계기로 건강약자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해 연계·지원하고, 적정한 병원 이용을 돕는 등 '원스톱 사회돌봄체계'로 발전시켜나갈 구상을 하고 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휴블런스 서비스"는 초고령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며 "누군가 해결 못하던 일을 국민디자인단을 통해 더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접목, 사회돌봄의 형태로 시범운영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홍천산나물 판매행사 드라이브스루로 개최

면역력 증진하고 코로나19 이겨내요~!

홍천산나물 판매행사가 4월 16일부터 5월 9일까지 매주 금, 토, 일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산 관광지에서 운영된다.

운영 장소인 팔봉산 관광지는 대한민국 100대 명산이자 홍천군 관광명승 9경 중 1경으로 홍천군 최고의 관광명소로 뽑힌다. 주최측은 "봄기운 충만한 홍천의 제1경 팔봉산의 정취와 봄에만 맛볼 수 있는 홍천산나물을 즐기는 건강한 여행"이라는 테마로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형식의 드라이브스루로 운영된다.

주요품목은 명이나물(울릉종, 오대종), 눈개승마, 곰취이고 이외에도 두릅, 엄나무순, 참취 등과 건나물,

산나물김치, 장아찌 등 가공식품을 판매한다.

행사에 참여해 산나물을 구입하면 산나물 모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매일 준비된 수량에 한해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홍천문화재단 전문준 대표이사는 "어려운 코로나19 정국에 홍천군의 청정 산나물을 홍보하고 조금이나마 어려운 생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군과 행정안전부의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정부 방역기준에 따라 안전한 행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였으니 안심하시고 청정 산나물과 함께 주변 경관 즐기러 오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원주시, 청골사거리시설개선 추진!

전방 신호등, 교통섬, 고원식 횡단보도 등 사고 예방 시설 설치

원주시가 봉화산 2택지 및 기업도시 활성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최근 교통사고 발생이 잦은 청골사거리에 대해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국비 7,500만 원 포함 총 1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정지선 지키기 유도 전방 신호등을 비롯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섬과 감속운전을 유도하는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오는 6월까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신호체계 및 차로운행 방식을 바꿔 차량지·정체율을 개선하고 통행속도를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길복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도로를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적극 개선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지·정체 등 교통 혼잡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골사거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로 2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만식기자



강원도 정수장 위생점검의 날 운영, 유충 발생 사전 차단

수돗물 유충 대응 영상회의, 정수장별 방충망 등 위생시설 신속 보강, 상시 모니터링 운영 등 추진

강원도는 기온이 상승하기 전 수돗물 유충 발생 사전예방 및 관리를 위해 도내 정수장 69개소(점검인력 100명)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원주지방환경청, 유역수도지원센터와 위생관리 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화천 산양정수장 정수에서 장기 미사용 구형 여과기 재가동 과정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되었다.

신속하게 여과기 전면교체 및 정·배수지 청소 등을 실시하여 유충이 발견된 정수장의 수돗물이 수용가로 공급되기 전 조기에 차단했다. 해

당지역 정수장은 일일 모니터링 실시중이며 현재까지 정수에서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밖에, 정수에서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원수 및 역세척수 등 처리과정 중 발견된 11개 정수장에 대해서는 정수처리 공정 강화, 상시 모니터링 실시 등으로 수용가 유출되지 않음 유충 차단을 완료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여과기 방충망 일부 손상 등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51개 정수장은 현장에서 개선 조치요구, 4월말 까지 방충망, 포충기, 밀폐용 덮개 등 위생시설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원기자

도는 4월 16일 녹색국장 주재로 18개 시·군 상수도부서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따른 시·군별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정수장 「위생점검의 날(매주 월요일)」 지정, 공평별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의 정수장 위생관리 방안을 제시 하였다.

박용식 녹색국장은 "이번 영상회의를 통해 정수처리 전 과정의 위생시설을 완벽하게 보강하여 유충 발생을 완벽히 차단하고 도민에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태백시 3개 봉사단체, 코로나19 방역활동... 1년째 이어져

태백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의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1년째 묵묵히 방역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 봉사단체를 소개했다.

한국여성예림회 태백지회,바르게살기운동 태백시여성회, 보건소 치매파트너 봉사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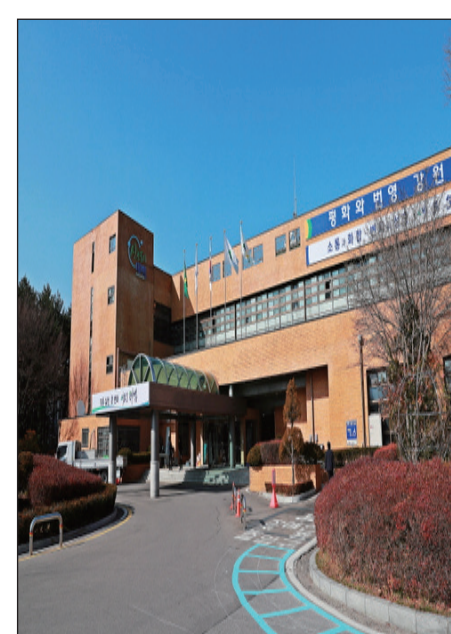
이들은 작년 5월경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자발적으로 방역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특히, 타 지역의 인구가 유입되는 관문인 태백시외버스 터미널의 방역을 맡아 1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태백 시외버스 터미널은 수많은

외지인들이 드나드는 곳이므로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상존한 상황에서도 이들 단체는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교대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터미널 입구와 객실의자, 손잡이 난간 및 공중전화 박스 등 감염병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표면을 구성구석 소독약으로 닦아 왔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자리에 머무르고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데는 뒤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이어온 이들 단체의 공이 크다"며, "음지에서라도 자기 역할을 다하는 이들이 있어 태백시의 미래가 밝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최만식기자



춘천, 100억 규모 에어돔 송암에 들어선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춘천 확정

송암동 일대에 100억 규모의 에어돔이 설치된다. 이를 통해 춘천시정부는 전국 규모의 전지훈련터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부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지원 사업 평가 결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춘천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심사 결과 부지 여건, 수도권과의 접근성 및 주변 환경 등을 높게 평가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정부는 국비 50억원을 확보, 총 사업비 100억을 투입해 송암스포츠타운 내 카트장 일대에 에어돔을 구축할 방침이다.

에어돔은 공기압을 이용해 만든 돔형태의 구조물로 내부에 기둥과 대들보를 만들지 않고 공간 형성을

할 수 있는 건축기법이다.

건축 규모는 에어돔 1만1,000㎡, 부대시설 1,000㎡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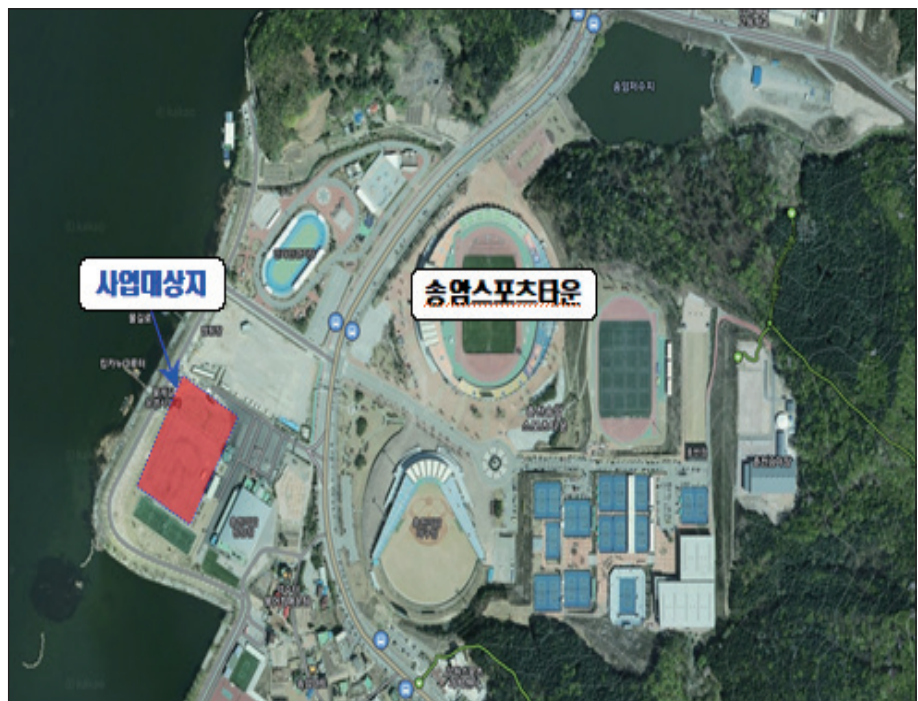
평상시 에어돔 내부는 축구장(9,000㎡)과, 워업존, 배드민턴장(2,000㎡)으로 활용한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장 상황실, 병동, 피난시설 등 재난 관련 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다.

사전에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및 설계 후 2022년 5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부 관계자는 "에어돔 공모사업 선정으로 춘천시민의 건강한 삶은 물론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체육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속초문화재단,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강원권 컨소시엄 기관 선정

강원문화재단과 공동주관을 통해 속초 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 추진

(재)속초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하고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총괄하는 「2021~202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에 강원문화재단, 평창군 문화예술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강원권 공동주관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지역에서 활동할 인력을 발굴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교육 및 실무경험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강원권에서는 강원문화재단이 속초문화재단·평

창군문화예술재단과 함께 정규과정, 연수과정, 심화과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도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게 된다.

속초문화재단은 신규 교육생 대상 교육과정을 담당하게 되며 속초의 장점과 특징을 부각시키는 도시재생, 관광기획, 축제기획 등과 관련한 경험 중심의 지역특화교육, 속초의 문화를 경험하는 필드워크, 현장의 언어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젝트 등의 커리큘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속초에서 지역문화기획자, 문화예술교육사, 예술인, 방과후예술강



사, 학예사 등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하고자 하는 분을 20명 선발할 계획이며, 우수교육생에게는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표창 및 기획사업 운영 참여 등의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재단 관계자는 "강원문화재단·평창군문화예술재단과 함께 지역

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되어 의미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역 이슈 발굴을 넘어 트렌드를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 문화 활동 활성화와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은기자

영동군, 워크온 4월 봄맞이 걷기 챌린지 진행

충북 영동군은 걷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4월 봄맞이 걷기 1차 챌린지(4.13 ~ 4.25) "당신을 초대합니다!"를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으로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군보건소는 영동군민의 건강증진과 걷기 실천을 향상을 위해 비대면방식의 모바일 걷기앱 워크온을 기반으로 한 건강걷기사업을 이번달을 시작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4월 봄맞이 걷기 챌린지 참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워크온' 설치 및 '영동군 공식커뮤니티'에 가입 후, 워크온 챌린지 메뉴에서 예약 및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4월 챌린지는 이달 13일부터 25일까지 목표걸음수 10만보 달성자 중 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정,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챌린지 기간 동안 목표걸음수 10만보를 달성하게 되면 응모가 가능하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4월말 워크온 앱 내 공지사항에 게시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챌린지에서 군민들이 걸을 수 경쟁을 통해 걷기 운동에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워크온 앱을 통해 걸음수와 자신의 순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에 따른 지속적 걷기운동 실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준용 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면서 건강걷기를 실

천해주시 바란다."며 "군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걷기 챌린지를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제99회 천안시 어린이날 행사' 온·오프라인 개최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가 행복한 천안' 구현

천안문화재단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신나게, 즐겁게, 아이가 행복한 세상, 천안!!' 제99회 천안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아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천안시 어린이 기획단 등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아동친화도시, '아이가 행복한 천안'을 구현한다.

온라인행사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온라인 ZOOM 골든벨 ▲카트라이더 학교 대항전 ▲비대면 체험키트 ▲샌드아트와 함께하는 구연동화 ▲플로깅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오프라인 행사는 5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불당동에 위치한 시민체육공원에서 ▲텐북 골든벨 ▲카트라이더 학교 대항전 결승 ▲만나라 이웃나라 세계여행 컬러링 ▲숲 속 음악회 ▲프린지 공연 등을 다채롭게 운영한다.

문화재단은 또 4월 14일 오전 9시부터 SNS를 통해 비대면 만들기 체험 '흥이춤이 양말인형 만들기'와 '내가 꾸미는 가오리엔 만들기'를 선착순으로 접수했으나, 총 600개가 2시간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참여도가 높아 추가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성규 대표이사는 "문화재단은 발열체크, 쿨링포그 분사, 행사장 전체 수시 방역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



켜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온·오프라인 방식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나 어린이날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해 신나고 즐거운 5월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및 우천 시 오프라인 행사방식은 변경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 열리는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천안문화재단 축제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원호기자

충청북도, 영동 산막와이너리 국제 파리와인컵 실버상 수상 쾌거

와인 본고장 프랑스에서 국내 최초 글로벌 와인 명성 인증



영동 와이너리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송용섭)은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국제 와인 품평회 파리와인컵(Paris Wine Cup)에서 영동 산막와이너리가 실버상(2위) 2종과 브론즈상(3위) 1종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은 파리와인컵은 전 세계 많은 와인이 출품해 경쟁을 벌이는 국제 와인대회이다.

B2B 식음료 무역네트워크 플랫폼인 식음료무역네트워크(Beverage Trade Network)에 의해 창설됐다.

이번에 실버상을 수상한 와인은 산머루 100%로 양조한 '비원퓨어'와 산머루, 캠벨 열리가 블렌딩된 '비원'이다.

'비원퓨어'는 앞선 2020 인터네셔널와인페스티벌에서 브론즈상을 수상했고, '비원'은 런던와인페스티벌에서 실버상을 수상한 저력 있는 고품질 와인이다.

브론즈상을 수상한 '아로퓨어'는

아로니아를 원료로 양조한 것으로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특허기술을 이전받아 제조한 와인이다.

국내에서는 앞선 2020년 한국와인대상 브론즈상을 수상했으나 국제대회에서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동 산막와이너리 안성분 대표는 "비원퓨어, 비원, 아로퓨어가 국제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의 단합된 팀워크와 꾸준한 양조 기술 개발 덕분이다."라며, "특히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가 품질분석 지원 등 기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가능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충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와인의 본고장 프랑스에서 충북 와인이 높은 점수로 수상한 점은 세계 속에 충북 와인의 위치를 구축한 자랑스러운 성과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다양한 와인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계룡시, 교육기관 유치·활성화... 적극 '총력'

계룡시가 교육환경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학생 중심 교육, 현장 중심 교육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부쳤다.

최홍묵 시장은 지난 14일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을 만나 계룡시 최대 교육 현안인 '계룡교육지원센터 설치'와 '계룡대실지구내 '초등학교 신설' 추진을 적극 건의하였다.

계룡시는 충남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젊은 연령층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인구수 대비 학생비율은 15.7%로 도내 15개 시·군중 가장 높은 만큼 타 지역과 유사한 교육행정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나 교육인프라 미흡으로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시에서는 그동안 수시로 충남교육청 방문 및 교육장 면담, 도지사 건의 등을 통해 교육지원청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그 결과 올해 1월에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계룡교육지원센터' 개소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 9월 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등 지역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에 적극 총력을 기울여왔다.

계룡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민원 처리를 위하여 논산시까지 가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이 해결됨은 물론 지역 교육 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가 이루어져 증가되는 교육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실지구 개발에 따라 2023년까지 3,800여세대 입주 및 700여명의 초등학교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이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학습권 보장 및 교육환경 향상을 위하여 초등학교 신설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작년보다 올해까지 총 7회에 걸쳐 논산계룡교육지원청과 함께 '대실지구 학교 신설 실무협약체'를 구성·운영하는 등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최홍묵 시장은 "계룡시는 인구수 대비 학생 비율이 충남 시·군에서 가장 높고 젊은 연령층이 많은 만큼 교육열기가 대단하며 그 수요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 중심 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행정을 위해 계룡교육지원센터와 초등학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린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도시인 계룡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행정과 날로 높아가는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계룡교육지원센터 설치'와 '대실지구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한 '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비대면 숲해설 운영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16일 금강수목원 내 감염병 확산 요소를 차단코자 숲해설 프로그램을 대면과 병행해 비대면으로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강수목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숲해설 프로그램은 금강수목원 내 야생화원, 민속식물원, 염색원 등 8개 대표 소원의 주요 수목에 부착한 QR코드를 스캔하면 수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긴 동영상 시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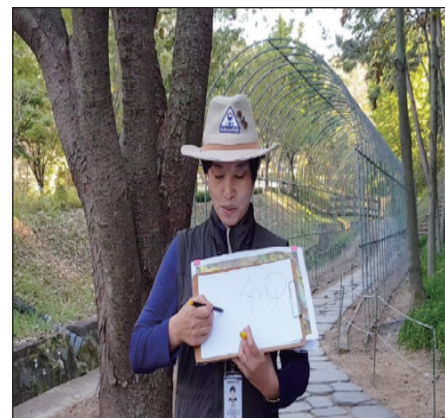
이와 함께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탐방객들을 위해 '금강수목원 숲이야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금강수목원 숲이야기는 네이버 밴드(BAND)를 통해 금강수목원 내 수목의 변화와 자연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웹 또는 앱을 통해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도 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감, 우울감을 산림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고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비대면 숲해설 프로그램을 통해 안

전하게 자연을 보고 느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나마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청주시, 공원 내 노후 화장실 개선 추진

청주시가 공원 내 노후 화장실에 대한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오는 5월까지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상당구 수동 삼일공원과 서원구 개신동 장구봉근린공원의 노후 화장실을 대상으로 변기, 세면대, 천정, 화장실 칸막이, 바닥타일 등과 전기 및 배관 시설을 전면 교체해 새롭게 리모델링 할 계획이다.

화장실 내부에는 안심벨도 설치해 위급상황 시 안심벨을 누르면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긴급 출동으로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준공한 지 20년이 넘는 2개의 화장실에는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오래된 화변기가 있는 등 시설물이 낡은 것은 물론 내부 조명이 어두워 정

비가 절실했던 곳이었다.

이번 화장실 개선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화장실로 변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친환경 에코 건식 소변기는 냄새 역류 차단밸브가 있어 더욱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원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새롭게 단장한 공원 화장실을 찾는 시민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고 깨끗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羅州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 강소연구 개발특구

광주시, 광주정신 실천한 대학생에 의로운 시민 표창

전남대 허윤기·김성민 학생, 뺑소니 사고 피해자 구호 활동 펼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허윤기(22) 씨와 김성민(22) 씨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씨와 김씨는 지난 1월15일 새벽 2시43분경 북구 용봉동 신안사거리 도로에서 한 승용차량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배달 중이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119와 경찰에 신고했다.

또 사고지점이 왕복 4차선 도로로 새벽에도 차량통행이 잦은 점을 감안해 피해자 주변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파편을 정리하며 2차 사고발생을 예방했다.

전남대학교 친구사이인 허윤기·김성민 씨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로운 광주정신을 실천한 공적을 인정받아 올

해 두 번째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됐다.

허윤기 씨는 "사명감이 남다른 경찰관인 아버지로부터 사람의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듣고 자란 덕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씨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을 때 광주사람이라면 누구나 했을 일이다"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광주의 많은 청년들을 대표해 상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허윤기, 김성민 학생의 의로운 행동을 보면서 나눔과 배려, 연대의 광주정신이 세대를 넘어 젊은 세대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 같아 기쁘다"며 "광주시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의를 실천해 우리 모두가 광주정신의 빛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로운 시민상은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의로움을 실천한 시민을 발굴·표창해 광주의 의(義)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시책이다. 광주시민 누구나 이웃이나 주변에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을 찾아서 추천할 수 있다. 김덕윤/기자

세종시교육청, 최은희 부교육감 취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세종교육이 될 것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최은희(崔銀姬, 50) 교육부 국제협력관이 16일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최은희 부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은 아이들이 행복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삶과 배움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세종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교육감은 광명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美 일리노이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행정고시 38회에 합격해 1995년 공직에 입문한 후 교육부 창의인성교육과장, 대학장학과장, 대

학정책과장, 충북대학교 사무국장,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정책기획관, 학교혁신과장, 국제협력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최은희/기자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 장애인 복지증진 공로 표창장 수상

15일 하남시장에인후원회, 제4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김순덕 전주여고 교사, 첫 전시회 수익금 전액 기부 '훈훈'



하남시장에인후원회 회장(가운데)이 강성삼 부의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순덕 교사는 "작은 금액이지만 작가로서 열린 첫 작품전시회의 판매금을 보다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다"며 "전시회를 찾아와 주시고 작품을 구매해 주신 분들과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선뜻 성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의 마음이 함께 모인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삼 하남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하남시장에인후원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수연 하남시장에인후원회 회장은 15일 열린 '제41회 장애인의 날 및 제17회 하남시장에인축제' 기념행사에서 강성삼 부의장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장애인 봉사활동에 앞장서 온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

강성삼 부의장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개선하고 삶

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하남시장에인후원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표창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달라는 의미로 알고,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봉사 하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장에인후원회는 지난 2006년 결성 후 하남시 장애인들을 위해 사랑의 김장담그기 등 각종 행사와 후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최근수/기자

김순덕 교사, 첫 작품전시회 판매 수익금 전액(435만원) 전주복지재단 '전주사람'에 기부

전주여고 교사로 재직 중인 김순덕 작가는 자신의 첫 작품전시회 수익금 전액을 취약계층에 기부했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순덕 교사는 지난 2~8일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첫 작품전시회 '서정을 그리다' 판매금 전액인 435만원을 전주시 복지재단 '전주사람'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위기청소년 등 법과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내 위기가정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사람'은 전주형 SOS 긴급지원사업, 사랑나눔간병

비 지원사업, 전주사람은행, 코로나19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등 전주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순덕 교사는 "작은 금액이지만 작가로서 열린 첫 작품전시회의 판매금을 보다 의미있는 일에 사용하고 싶었다"며 "전시회를 찾아와 주시고 작품을 구매해 주신 분들과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선뜻 성금을 기탁해 주신 분들의 마음이 함께 모인 것"이라고 전했다.

유창희 이사장은 "첫 개인전이었던 작품전시회의 판매금 전액을 기부한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면서 "기부해주신 성금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전주 시민들에게 소중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제2작전사령관 기관표창 수상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가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2작전사령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는 민·관·군·경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과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 국방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 같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는 17명의 위원을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으로 편성, 매 분기별 1회씩 특색 있는

정기 협의회 개최를 통해 예비군 훈련장시설 지원 및 각종 훈련용품 제공 등 지역예비군육성에 대한 협의는 물론, 최근 CCTV통합관제센터와 군·경 합동상황실의 영상공유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철저한 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는 등 비상대비 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문경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반식/기자



김포시청 복싱선수단, '제31회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 복싱대회'서 메달 획득

평택시 송북동 자원봉사나눔센터,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랑의 빵 만들기, 온정 이어져'

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복싱선수단은 제31회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 복싱대회에 출전해 2개의 메달(은메달 1, 동메달 1)의 메달을 획득했다.

충남 청양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복싱대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 됐다.

김포시청 소속 5명의 선수(52kg 1명, 64kg 2명, 75kg 1명, 81kg 1명)가 출전했으며 메달 획득 선수는 ▲은메달 송주현(75kg) ▲동메달 김진택(64kg)이다.

2020년 창단한 복싱 선수단은 작년 코로나19 상황 속 유일하게 개최된 경찰청장기 전국 복싱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첫 대회에서부터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훈련과 방역수칙 준수를 동시에 이행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동희/기자

평택시 송북동 자원봉사나눔센터에서 지난 14일 관내 어르신 10여명과 함께 '사랑의 빵 만들기 및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어르신 및 나눔센터 회원들은 지역아동센터 전달을 위한 사랑의 빵 150여개를 직접 반죽하고 정성들여 구웠다. 사랑의 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되어 이웃 사랑, 나눔, 실천의 의미를 뱉었다.

송북동 자원봉사나눔센터 하미경 센터장은 "2021년의 첫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함께해주신 지역 어르신 및 회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태근 송북동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갑갑한 시기에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참여해주신 송북동 자



원봉사나눔센터 회원 및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지원해 따뜻한 송북

동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주/기자

경기아트센터, <2021 경기평화콘서트 '걸어온 길, 가야할 길'>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랜선 관객 '평화지킴이' 300명 모집, 줌으로 실시간 참여!! 화려한 라인업, 평화메시지



4.27 평문점선언 3주년 기념
2021 경기평화콘서트
걸어온 길, 가야할 길
유튜브 생중계 (4.21(수) 오후 7시)
랜선 관객 '평화지킴이' 모집 414-418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 www.gas.or.kr 참조

4.27 평문점선언 3주년을 기념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고,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며 세대의 계승을 이루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참여로 한반도의 평화와 희망을 노래합니다

국내 최고의 포크 싱어송라이터 양희은

세계가 주목하는 'K-POP'의 대표주자 이지

떠오르는 희망의 아이콘, '다채롭' 브레이크브레즈

백두산 전지에 울려 퍼진 애리랑의 주인공 알리

명실상부 대한민국 뮤지컬계의 대부 남경주

이소은, 민아, 김동진, 임영웅, 김민호, 다비치, 유다정

최근수/기자

예산군, 제48회 윤봉길평화축제 기념행사로 축소 개최

군민 안전 최우선으로 기념식과 전시행사, 온라인 이벤트로 방향 전환!

예산군은 제48회 윤봉길평화축제에 코로나19 확산예방 및 관람객 안전 확보를 위해 기념식과 전시행사 위주로 축소 진행한다.

군은 윤봉길평화축제 주관단체인 (사)월진회와 방역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축제의 명맥 유지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올해는 기념식과 전시 행사, 온라인 홍보 이벤트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한 비대면 프로그램 위주의 소규모 행사로 축소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윤봉길평화축제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소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군은 2년 연속 취소는 축제의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감염병 전문가의 사전 검토와 프로그램별 코로나 위험도 평가를 거쳐 4.29 상해의거 89주년 기념식과 전시, 온라인 홍보를 기초 골자로 한 행사 계획안을 마련했다

먼저 군은 4월 29일부터 5월 한 달간을 윤봉길의사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불꽃 청년 윤봉길, 그를 기억하다'는 주제로 윤봉길의사의 4.29 상해 의거 의미와 나라사랑 정신을 온 국민 모두가 되새길 수 있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세부 행사로는 4월 29일 의거 당일 덕산면 충의사 일원에서 유관기

관 주요인사와 유족, 수상자 등 소규모의 초청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상해의거 89주년을 기념하는 다례행사와 기념공연, 시상식 등 소규모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의사 내 저한당 입구에는 윤봉길 의사를 포함한 48인의 주요 독립운동가의 독립 운동사를 태극기와 매화로 형상화 한 거리 전시행사를 기획해 독립운동가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과거와 미래를 재조명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 매 주말에는 충의사 내 별도 공간에서 태극우산 체험과 매화 족자 만들기 등 지역 작가와 함께 하는 체험행사를 계획 중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한 팀에 한해 진행할 예정이며, 참가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온라인에서도 '윤봉길의사 바로알기 대한민국 온라인 이벤트 행사'를 기획해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 윤봉길 평화축제를 알리고 홍보할 방침이다.

축제 관계자는 "올해 윤봉길평화축제는 획일적인 온라인 축제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 위주의 안전한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윤봉길 의사의 4.29 상해의거의 송고한 의미가 국민 모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2021. 04. 29. (목) - 05. 30. (일) 예산군 충의사 저한당 일원 www.ybgfestival.net

제48회 윤봉길 평화축제 memorial event

제48회 윤봉길평화축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기념식과 테마전시, 온라인이벤트로 축소 운영합니다.

주요 프로그램

기념식 4월 29일 11시(목) 저한당	테마전시 Gallery 48 藝軒 4월 29일(목) ~ 5월 30일(일) 저한당 일원	테마체험 5월 1일(금) ~ 5월 23일(일) (매주 토, 일 10시-17시)	온라인 이벤트 참여하면 선물이 워프론~ 5월 1일(목) ~ 5월 30일(일) www.ybgfestival.net
--------------------------	---	--	---

주최: 예산군 | 후원: 윤봉길평화재단 | 문의: 041-338-9514 / 홈페이지: www.ybgfestival.net | 윤봉길평화축제

관악구, 온택트(Ontact) 청년문화존 운영사업 공모

관악구가 민간이 보유한 공간을 활용해 청년 네트워킹 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택트 청년문화존 운영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온택트 청년문화존 운영사업'은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상황 속 온라인 참여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아 올해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구는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자기개발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청년공간을 운영해 청년 문화 조성 및 네트워킹 구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관악구에 소재를 둔 등록단체(업체)로 33㎡ 이상의 공간을 보유하고, 청년대상 온택트(Ontack) 생활강좌, 공연, 행사 등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사업자가 다.접근성, 신청자의 사업이해도, 프로그램 운

영의 효과성 등 사업내용을 심사해 최종 5개소를 선정해 300만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월 3회 이상 필수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3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단체)는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청년정책과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신청서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고시공고 또는 분야별정보>복지>청년>청년소식)에서 확인하거나 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박준희 구청장은 "온택트 청년문화존 운영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청년 공유 공간을 발굴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년 문화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고, 청년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별빛대안전 #생태의조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온택트(Ontact) 청년문화존 운영

모집기간 2021. 4. 9.(금) 09:00 ~ 4. 23.(금) 18:00

모집대상 관내 민간 공간운영자 (5개소)

신청방법 관악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행정소스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방문 또는 이메일 (0215031218@gg.go.kr) 접수
※ 방문접수는 당일 이용

사업기간 2021년 7월 ~ 2021년 10월

지원내용 사업비 300만원 범위 내 지원

결과발표 6월중 개별 안내

관악구 청년정책과 02-879-5915



경기농업 띄울 7개 특화작목 '쑥쑥' 키운다

선인장·느타리·콩·곤충·장미·가지·상추 등 집중 육성

경기 안성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허정욱 씨는 18,181㎡(5,500평) 규모의 농장에서 연간 1,200톤에 달하는 느타리를 생산하고 있다. 매년 상당한 양의 버섯을 재배하고 있지만, 소비는 크게 늘지 않아 느타리 가격은 오히려 10년 전 보다 싸고, 대신 버섯 키우는 배지 재료는 43%나 올라 경영여건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

경기도 주력 작목인 느타리는 전국 생산량의 68%(33,050톤)를 점유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타 도에 비해 2.3배나 높지만, 신규 소비처 발굴, 우량 신품종 육성,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네덜란드 등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는 접목선인장도 경기도 대표 작목으로, 전국 재배면적의 67.7%(29.2ha)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수출 선인장의 품종 퇴화와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수출하는 데 애를 먹고 있어 수출경쟁력을 높일 신품종 육성과 무병 종묘 생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작목별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장경쟁력을 높여 농업·농촌을 특화 발전시키기 위한 '제1차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본격 추진된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과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선인장/다육식물 △버섯(느타리) △콩(장류콩) △곤충(천적·애완곤충) △장미 △가지 △상추 등 7개를 경기도 지역특화작목으로 선정하고, 앞으로 5년간 700억 원을 투입해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한다.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앞으로 7개 품목에 대해 신품종 육성부터 고품질 생산·재배기술 개발, 가

공·유통시스템 구축, 국내외 소비시장 발굴·확대까지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경기지역 '선인장'은 수출 유망 품종 육성 및 무병 생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수출액을 현재 432만 달러에서 2025년까지 500만 달러로 끌어올리고, '다육식물'의 생산액은 412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증대시킬 계획이다.

경기지역 '느타리'는 생·건조·냉동 버섯 유통체계 구축 및 간편 편의 가공제품 다양화 등을 통해 수출액을 현재 81만 달러에서 2025년까지 150만 달러로, 생산액은 577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각각 확대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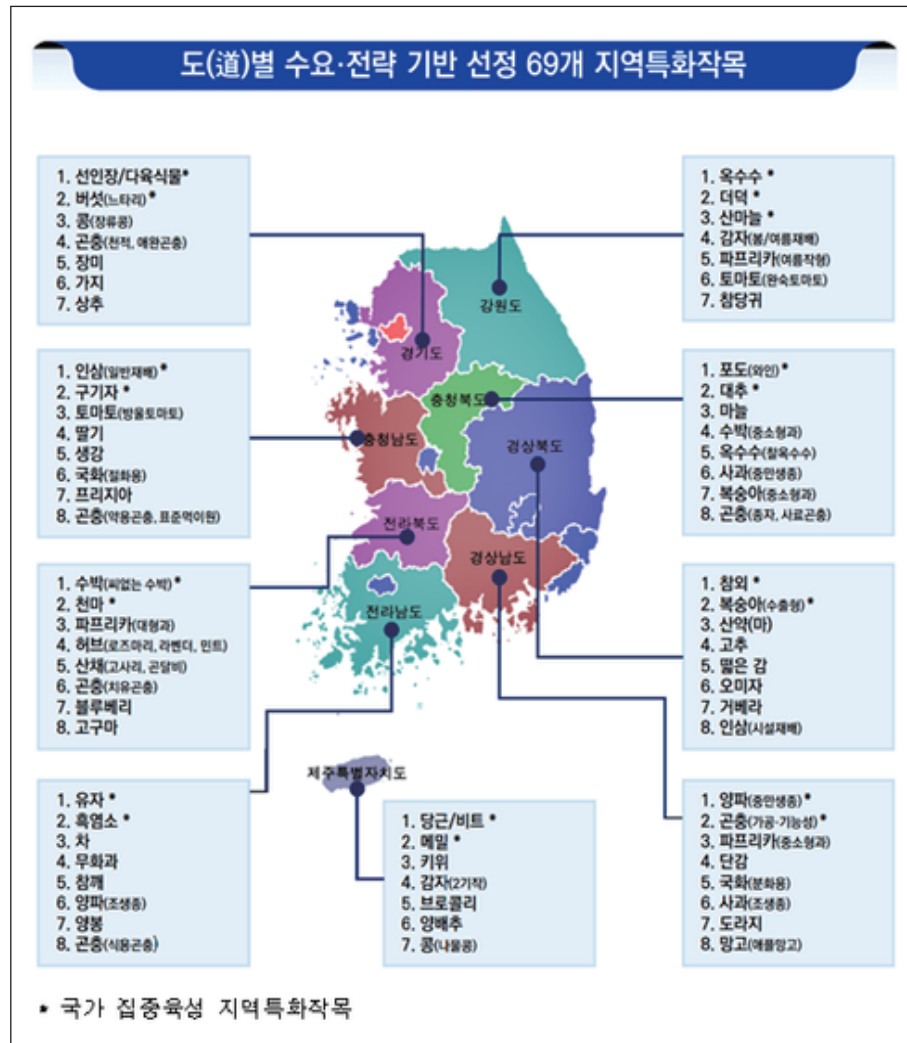
경기지역 '콩(장류콩)'은 유기재배 기술 보급 및 지역브랜드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현재 5,124ha에서 2025년 7,000ha까지 넓혀 '과주장단콩' 등 경기 장류콩의 명성을 유지해 나간다.

경기지역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용 곤충자원 발굴 및 대량사육기술 구축 등을 통해 '애완·천적곤충' 시장 규모를 현재 13억 원에서 2025년까지 23억 원으로 키워 나간다.

경기지역 '장미'는 분자육종을 활용한 트렌드에 맞는 신품종 조기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 개발 품종 보급률을 현재 2.2%에서 2025년까지 5%로 향상시키고, 장미 종묘 해외 수출은 50만주에서 80만주까지 확대시킨다.

경기지역 '가지'는 ICT 활용 수경재배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생산량을 현재 4,131톤에서 2025년까지 7,000톤으로 끌어 올린다.

경기지역 '상추'는 고온기 안정 생산을 위한 상추 우량 육종 기술 및 양어수 활용 아쿠아포닉스 기술 개발 등 통해 재배면적을 현재 675헥타르(ha)에서 2025년까지 940헥타르(ha)로 10% 가량 늘려 수도권 소비시장



에 안정적으로 상추를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역특화작목' 시행(19.7.9.)에 따라 농촌진흥청과 전국 9개 도는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선정된 총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집중 육성하는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69개 지역특화작목 중 △경기 선인장/다육식물·버섯(느타리) △강원 옥수수·산채(산마늘, 더덕) △충북 포도(와인)·대추 △충남 인삼·구기자 △경북 참외·복숭아 △경남 양파·곤충 △전북 수박(씨없는 수박)·천마 △전남 유자·흑염소 △제주 당근/비

트·메밀 등 각 도별 2개씩 총 18개 작목을 국가 집중육성작목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과 육성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김상범 농업연구관은 "계획기간 내 특화작목별 최적화된 연구 인프라 조성 및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특화작목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농가의 연평균 소득증가율을 전국 농가 대비 2배 이상 증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경북도, 사회적농업활성화위한설명회가져...

농식품부,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우수 사회적 농장 등 관련 전문가 초청 -

경북도는 15일 대구 엑스코에서 사회적 농장 관계자, 사회적 농업 실천 희망 농가, 시군 담당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농업 활성화와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 경북·경남·제주권역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사회적 농업 실천 우수농장 등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실시하였다.

먼저 농식품부에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비롯하여 '21년 추진방향, 중장기 계획'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경북·경남·제주권역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에서는 사회적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회적 농장의 역할 및 운영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경산 '바람햇살농장'의 발달장애인 대상 영농재활 및 소외계층 어르신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충남 홍천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만성정신질환자 대상 농업 교육 및 직업재

활 프로그램 소개 등을 통해 사회적 농장 관계자, 사회적 농업 실천 희망 농가, 시군 담당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농업 활성화와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지속적인 확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18년 청송 해뜨는농장을 시작으로 '20년 경산 바람햇살농장, '21년 포항 품바라기, 경산 포니힐링농장, 의성 평평마을 등 5개소가 사회적 농장으로 선정되었으며, 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개선 등의 목적으로 개소당 연간 6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 받고 있다.

김대식 농업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최근 사회적 농업이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과소화에 대응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농촌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농업을 더욱 확산시키고 활성화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울산시,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올해 8개사 신규 모집 예정 ... 최대 8,500만 원 지원

울산시는 오는 4월 21일까지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에 참여기업 모집한다.

'신기술 창업활성화 민간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학·연 연계로 신기술 이전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예정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중소기업이거나 업력 7년을 초과한 기업 중 신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 다각화나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이다.

올해의 경우 기존 사업과 지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분야를 추가해 총 8개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그동안 사업과 지원에

집중하였으나, 신기술의 상용화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단발성 지원에 골목할만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의 경우 연구개발(R&D)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해 국비사업 및 사업화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기업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청기업에는 기업당 기술이전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금 최대 4,000만 원과 연구개발(R&D) 지원금 최대 1억 7,000만 원(연 8,500만 원, 2년)이 지원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연구개발 과제 연계와 투자기관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한 투자유치도 함께 지원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존 주력산업의 침체와 산업환경 변화,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시기이지만, 연구기관의 우수한 신기술 이전 촉진과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을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행복한 내일" "2021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이 주관하는 "2021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31회를 맞는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한 행사이다.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에 개최된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수상자와 행사관계자 등 참여자를 최소화했다.

행사장의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자 30명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종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조상욱 행복모아(주) 대표이사, 산업포장은 김혜일 (취리키지) 팀장에게 돌아갔다.

조상욱 대표이사는 SK하이닉스(주)의 사회사원 표준사업장인 행복모아(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으며, 그에 따라 행복모아(주)는 창립 3년 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중 가장 많은 장애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됐다.

조상욱 대표이사는 방진복 제조 및 세탁을 주요 직무로 하여 장애인을 고용해왔으며, 최근 제과제빵 직무를 신규로 발굴하여 중증장애인 고용을 추가로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 456명의 임직원 중 400여 명의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95%에 이른다.

또한 전문사회복지사 8명을 배치하여 정기적인 상담, 경력관리 등 장

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포장 수상자인 김혜일 팀장은 중증 시각장애인 당사자로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김혜일 팀장은 (취리키지)테크놀로지사에서 근무하던 2009년 화면낭독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보증(QA) 업무를 담당하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2014년부터는 카카오 정보서비스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했고, 2019년부터는 웹(web)/앱(app) 접근성 사용자 테스트 업무와 함께 팀원에 대한 직무향상 교육 및 직무지도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애청소년 글로벌 IT 챌린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자 신용카드 발급, 점자 규격의 표준화, 시각장애인 특권권 확대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통령표창은 (취리키지) 김승범 조장과 (취리키지) 박영삼 경영지원본부 장에게 돌아갔다.

중증 뇌병변장애를 가진 김승범 조장은 하루리 팹팩센터 초기 직원으로 입사해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장애인 채용 직무 전문가로 성장했으며, 타 기업의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김승범 조장은 입사 후 각종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스텝제차 기술 최신 동향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등 직무능력 향상에 꾸준히 노력했으며, 타 기업에서 스텝제차 직무 및 식기세척 직무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비법을 전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취리키지) 박영삼 경영지원본부장은 바리스타, 재택근로 등 장애인 고용모형을 개발하고 채용 시 장애인

노동자를 우대했으며, 장애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체적으로 장애인고용 확대 방안을 수립하여 실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체였던 (취리키지)는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을 넘어 현재 72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로 거듭나게 됐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발달장애인 기타리스트 김지희 씨와 정각장애인 발레리나 고아라 씨의 합동공연을 통해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함께 큰 감동을 선사했다.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라면서, "장애인 일자리 상황의 개선과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위해 힘써 주시는 사업주·장애인 노동자·업무 유공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며, 그 모범을 보여주는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외국인투자유치 속도 낸다

지난 1월 개칭한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본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나선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오후 광주노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 KOTRA 인베스트코리아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OTRA 인베스트코리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에 설립된 국가투자유치 기관으로, 외국기업의 성공적인 국내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투자환경 홍보, 외국기업 대상 투자상담, 투자신고, 기업설립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투자

유치사절단 및 전담팀(TFT)과견 등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추진 ▲해외 투자유치설명회 및 투자유치 로드쇼 등 투자홍보 활동 ▲광주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광주시 소재 기업의 글로벌기업 협력 수요 조사를 통한 잠재투자자 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KOTRA 36개 해외 투자거점 무역관을 활용해 광주시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자동차, 에너지 등 글로벌 타깃 기업을 발굴하고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상현 KOTRA 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KOTRA와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협력해 광주 특화 분야에 첨단 외국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철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은 "해외투자유치 전문기관인 KOTRA 인베스트코리아와 협력하게 돼 투자유치의 청신호가 켜졌다"며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광주경제자유구역에 미래 융복합 산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개발 목적의 나무를 죽이는 행위, 당신을 구속합니다.

산림청과 경기도는 최근 부동산투기를 위해 불법으로 임목을 고사시키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고의적인 임목고사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점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다.

이번 단속은 암야 지목변경을 통한 시세 차익 등을 위해 고의로 임목을 고사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산림청 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림관찰을 불문하고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피해 발생 우려지를 대상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산림사법인력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 고의로 임목을 고사시키는 행위 ▲ 투기 목적으로 불법 산지전용을 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이미 시행 중인 계획에 따라 ▲ 산지전용 허가지·국유림 대부지 목적 외 사용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감도 높은 책임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선처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임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산지 불법훼손 방지를 위해 항공사진 및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산지훼손실태조사 시범운영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환경보호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 생태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고의적 임목고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예외 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부산시,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단속·캠페인 추진!

4.16.~4.30. 야간 부산 7개 해수욕장 내 폭죽놀이(상행위)

집중단속, 사계절 안심비치 조성 나서...



부산시는 본격 행락철을 앞두고 4월 16일부터 4월 말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관할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폭죽놀이와 폭죽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상행위 포함)가 불법임을 모르는 방문객들이 대부분으로, 부산시와 해수욕장 관리청은 합동캠페인 개최를 통하여 시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 16일 야간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시와 수영구 관계자 약 30명이 집결하여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6개 해수욕장 또한 관할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중에는 관리청별 자체 단속을 추진하고, 주말에는 시에서 단속인력을 지원해 추진한다. 계도와 캠페인 위주로 하되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및 폭죽 판매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각 5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최소한의 시민휴식공간인 해수욕장을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사계절 안심비치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궁영기자

광주 남구 "스쿨존 주정차 과태료 12~13만원"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광주 남구는 16일 "다음달 11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각각 12만원과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효력이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를 일반 도로보다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으로, 일반 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정차를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

우 일반 도로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과 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남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반감이 클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관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구청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 및 남구이야기 카톡 서비스 등 SNS와 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내용을 알리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께서 스쿨존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덕윤기자



불법투기 "꼼짜마!!" 김해시, 지역밀착 불법투기 감시관 운영

김해시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불법투기·소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밀착 불법투기 감시관 운영을 금년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의 최근 3년간 불법투기(소각) 증가율은 21%로 읍면지역의 나대지, 도심지 밀라와 원룸 밀집지역, 골목길 등에 불법투기된 쓰레기나 분리가 되지 않은 재활용품, 음식쓰레기 등으로 인한 미관저해는 물론 악취 발생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투기와 소각이 새벽이나 심야 등 단속취약시간에 이루어져 단속 공무원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인데, 시에서는

남궁영기자

이러한 점에 착안,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을 감시관으로 선발하여 운용함으로써 불법투기 감시와 단속에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해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이번에 선발된 13명의 지역감시관은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11개 읍면동에서 집중 단속을 하게 된다."며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불법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해시는 올해 초에 불법투기가 극심한 지역 20개소에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계도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는 등 앞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광명경찰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을 위한 '함께해요! 안전순찰' 실시

광명경찰서는,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 하고자 광명도시공사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집중 단속을 위한 '함께해요! 안전순찰'을 실시했다.

'함께해요! 안전순찰'은 경찰이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범죄 취약요소를 발굴·개선·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경찰치안 활동으로, 경찰은 안전순찰을 통해 몰래카메라 탐지기로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광명동굴, 국민체육센터, 도덕산캠핑장 등에 대한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여성 고객이 이용하는 시설의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하고 미비 시설에 대해 자연감시를 유도할 수 있는 미러시트지 부착, 비상벨 설치 등 방법 대책을 권고하였다.

광명경찰서장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중화장실 특성상 몰래카메라



범죄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고,효과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모든 공동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하면서 정기적인 범죄예

방진단과 안전순찰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순희기자



'나 혼자 산다' 김광규X헨리X화사, 뉴트로 감성 핫플에서 인싸 음식 먹방! 김광규, 낯선 비주얼 음식에 당황?

'나 혼자 산다'에서 핫플레이스 열정대로 몽친 김광규, 헨리, 화사가 뉴트로 감성이 물씬 풍기는 핫플레이스에서 인싸 음식 먹방으로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김광규가 낯선 비주얼의 음식이 등장하자 당황했다고 해 궁금증을 자아낸다. 오늘(16일) 밤 11시 5분에 방송되는 MBC '나 혼자 산다'(기획 안수영 / 연출 허항 김지우)에서는 김광규, 헨리, 화사의 인싸 음식 먹방을 공개한다.

김광규는 헨리, 화사와 함께 핫플레이스 식당을 찾는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장소에 김광규가 가우뚱한 반응을 보이자 화사는 "이런 데가 제일 핫해"라며 적극 추천해 기대감을 더한다. '핫플레이스' 화사가 추천한 핫플레이스는 요즘 유행하는 90년대 뉴트로 감성(?)의 냉삼(냉동삼겹살)집.

화사는 냉삼과 함께 핫하다는 이색 음식인 불돼지꼬리를 주문했다. 이름도 비주얼도 낯선 불돼지꼬리 등장에 "정그러운 거 잘

못 먹어요"라며 거부감을 드러낸 김광규는 의외로 까탈스러운 입맛임을 고백해 관심을 집중시킨다.

김광규의 반응에도 아랑곳없이 화사는 불돼지꼬리 먹방을 펼친다. 입에 들어가는 순간 뼈가 발라져서 나오는 불돼지꼬리 먹방 직전에 김광규는 신기한 듯 시선을 떼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보는 사람의 짐승을 자극하는 화사의 먹방에 자극받은 헨리도 불돼지꼬리 시식에 도전, 불돼지꼬리를 처음 맛본 헨리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김광규, 헨리, 화사가 핫플레이스 냉삼집에서 선보인 인싸 음식 먹방은 오늘(16일) 방송되는 '나 혼자 산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1인 가구 스타일의 다채로운 무지개 라이프를 보여주는 싱글 라이프 트렌드 리더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솔비, 1년 5개월 만에 가수로 컴백... 오는 22일 신곡 'Angel' 발표

솔비는 오는 22일 오후 6시 신곡 'Angel(엔젤)'을 발표한다. 지난 2019년 11월 '눈물이 빛깔 되어'를 발표 이후 1년 5개월 만의 가요계 컴백이다.

이번 신곡 'Angel'은 3월 서울옥션 경매에 출품됐던 'Just a Cake-Angel' 미술 작품에 포함돼 있던 음악 작품으로, 낙찰자의 음원 공개 동의로 대중들과 함께 들을 수 있게 됐다. 이후 음원 발표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그 결과 'Angel'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온다. 특히 1년 여간 심혈을 준비한 신곡은 솔비의 음악 감정을 해소해준 곡이라 더욱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컴백 소식과 함께 공개된 티저 이미지는 솔비의 두 개의 자아로 나누어져 케이크를 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타인이 바라보는 나와, 내가 아는 나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담겨있으며, 노이즈 가득한 톤앤매너로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의 모습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를 통해 신곡에 대한 메시지와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솔비는 2015년부터 음악과 미술을 결합한 '셀프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시작으로 직접 곡 작업에 참여하며 자신만

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다. 일렉트로닉·신스팝·딥 하우스·퓨처 디스코·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도전은 물론 강렬한 사운드부터 악기를 뺀 단순로운 사운드까지 음악적 시도를 꾸준히 하며 뮤직션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또한 호소력 짙은 시원한 창법과 말하듯 속삭이는 창법을 구사하며 각 장르의 음악 분위기에 맞는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고 있다. 늘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구축된 이미지에 갇히지 않으며, 자유롭게 음악과 미술을 넘나드는 솔비가 이번엔 어떤 곡을 들고나왔는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솔비의 신곡 'Angel'은 오는 22일 오후 6시 발매된다.

최만식/기자



'로스쿨' 김명민, 회심의 한 방 → 김범 새로운 용의자, 전율 유발 전개



'로스쿨' 김명민이 회심의 한 방으로 판을 뒤집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범이 새로운 유력 용의자로 떠오르며 전율 유발 전개를 이어갔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로스쿨'(연출 김석윤, 극본 서민, 제작 JTBC 스튜디오, 스튜디오 피닉스, 공감동하우스) 2회에서 서병주(안내상) 교수 살인사건의 모든 증거는 형법 교수 양중훈(김명민)을 범인으로 가리켰다. 현장 커피 컵과 필로폰 봉지에서 그의 지문 이, 서병주 손에서는 그의 머리카락이 발견됐다. 족적을 남긴 운동화와 단서가 될 만한 노트북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다. 사건 발생 하루 전 보스턴 행 편도 티켓을 끊었다.

이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은 차고 넘쳤지만, 그럼에도 유죄를 단정 지을 수 없는 건 뚜렷한 살해 동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 경찰은 '공짜 땅 뇌물 사건'으로 얽힌 악연으로 자백을 끌어내려 했지만, 법을 잘 아

는 양중훈의 허점을 파고들기란 쉽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핸드폰에서 '주래동 뺑소니 사건' 영상이 발견됐다. 뺑소니범이 바로 서병주란 충격적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주래동 뺑소니 사건'은 희대의 흉악범 이만호(조재룡)가 끔찍한 성폭행을 저지른 날, 이를 목격한 소년 이 달아나다 뺑소니 차량에 치어 사망했던 사건으로, 당시 소년을 쫓던 이만호가 유일한 목격자였다. 담당 검사였던 양중훈과 서병주는 이만호를 추궁했지만,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로 일관했다. 그런데 서병주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사건을 종결시켰고, 항소도 하지 않았다. 차번호를 기억하고 있던 이만호에게 '형량 거래'를 제안, 자신이 범인이라 사실을 물었던 것.

경찰은 취조실에서 양중훈과 이만호를 대면시켰다. 이만호는 "서병호 사님이 양검사님 유일한 미제 사건

범인인 거 아셨을 때,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나 같아도 배신감에 죽이고 싶었을 거 같다"라고 이죽대며 던지시 살해 동기를 던졌지만, 양중훈은 껍떡하지 않았다. 이후 에도 법정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목 비권을 행사했고, 되레 국선 변호사 박근태(이천희)를 통해 전달받은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지를 채점하는 등 이해가 어려운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의 애를 태웠다.

그런 양중훈이 현장 검증에 가서야 입을 열었다. 필로폰은 모두 세 면대에 버렸고, 저혈당 쇼크가 온 서병주를 살리기 위해 설탕을 탄 커피를 먹었다는 것. 사실 양중훈에게 '주래동 뺑소니 사건' 진실이 담긴 영상을 보낸 이는 바로 서병주 자신이었다. 뺑소니 사건을 덮고 파렴치한 성폭행범 이만호의 주취감정에 항소도 하지 않았던 그는 필로폰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져 있었다. 때늦은 자백으로 양중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지만, 양중훈은 자백을 경찰에 하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렇게 판이 뒤집혔는데, 곧바로 사건 현장 앞 계단에 떨어진 서병주의 안경 코발침이 발견됐다. 그가 사건 당일 계단에서 굴렀을 것이란 정황이 의심되는 증거였다. 그런데 갑자기 양중훈이 잠고인으로 현장 검증에 참석한 한준휘(김범)에게 "너였어?"라며 다가갔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강렬한 눈빛으로 팽팽하게 맞선 한준휘가 새로운 용의자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이날 방송에서 수석 입학생 한준휘가 존경했던 검사이자 삼촌이 서병주란 사실이 드러났다. 사시 2차까지 패스하고도 포기했던 이유는 '공짜땅 뇌물 사건'에 얽히며 타락한 삼촌에 대한 크나큰 실망과 충격 때문이었다. 입학 당시 "법을 깨는 자의 편법이 법에 무지한 자의 위법보다 더 위험하다"며 원칙을 사수하는 검사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던 그는 서병주의 교수 취임을 반대하는 대자보로 학교로부터 명예훼손 고소 위기까지 처했었다. "삼촌 같은 범조인 안 되려고 여기 온 건데, 삼촌한테 배울 순 없다"라며 필사적으로 그를 막으려했던 것.

이렇게 전대미문의 로스쿨 살인사건의 '범행 동기'가 될 만한 한준휘의 사연이 베일을 벗었고, 동시에 그는 삼촌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유력 용의자가 됐다. 그렇다면 양중훈이 그를 의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양중훈, 이만호에 이어 한준휘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캠퍼스 미스터리로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지는 '로스쿨'은 매주 수, 목 밤 9시 JTBC에서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컴백홈' 송가인-신승태, 서로 사귄 뻔? '10년지기 국악친구' 로맨스 전말 공개!

'트롯여제' 송가인과 '트롯 야생마' 신승태가 KBS 2TV '컴백홈'에 출연해 핑크빛 로맨스 비화를 공개한다.

청춘들의 서울살이를 응원하는 명랑힐링쇼 KBS 2TV '컴백홈'(기획 김광수/연출 박민정) 3회가 오는 17일(토)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는 가운데 세 번째 집 돌아온 게스트로 '전국 트롯체전'의 사제지간 송가인-신승태-오유진이 출연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송가인이 무명시절, 동네 주민들과 가족 같은 정을 나눴던 '사당동 빌라' 시절을 돌아볼 예정이다.

한편 최근 진행된 녹화에서 송가인-신승태는 특별한 인연을 자랑해 눈길을 끌었다. 86년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국악 전공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라고 서로를 소개했다. 이어 송가인-신승태가 또 다른 인연을 쌓은 곳은 바로 '트롯 전국체전'. 10년지기 친구를 심사위원과 참가자 자격으로 다시 만난 것에 대해 송가인은 "제가 심사를 보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나왔다. 나한테 말도 없이 나오더니 혼자서 겁나(?) 떨더라"며 당시 신승태의 모습을 구수하게 회상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송가인과 신승태의 로맨스 비화가 공개돼 현장을 발



각 뒤집었다는 후문이다. 신승태가 "제 주위 사람들이 친구(송가인)랑 잘 지내서 결혼 한 번 해보라고 바람을 넣는다"고 털어놓은 것. 나아가 신승태는 "은근슬쩍 가인에게 '사귀래?' 라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폭탄 고백을 해 주위를 핑크빛으로 물들였고, 이에 송가인 역시 당시 고백을 떠올

리며 허심탄회한 속마음을 꺼내 놓았다. 이에 10년지기 국악친구 송가인-신승태의 로맨스 전말이 밝혀질 '컴백홈' 본 방송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KBS 2TV '컴백홈'은 오는 17일(토) 밤 10시 30분에 3회가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이미테이션' 에이티즈(ATEEZ) 윤호, 新 보이그룹 '스파클링' 전격 합류!

에이티즈(ATEEZ) 윤호가 새로운 보이그룹 '스파클링' 전격 합류한다. KBS '이미테이션'을 통해 본투비 청량들의 매력을 물씬 뽐낸 그의 활약에 기대가 높아진다.

윤호가 속한 4인조 보이그룹 '스파클링'은 유진(윤호 분), 현오(이수웅 분), 세영(성하 분), 민수(산 분)으로 구성된 열정형 아이돌. 이중 유진은 부드러운 외모 뒤에 폭신했던 미소를 감추고 있는 외유내강 캐릭터로, 스윗한 매력으로 여심을 뒤흔들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오는 5월 7일(금) 첫 방송 예정인 KBS 새 드라마 '이미테이션'(감독 한현희/작가 김민정, 최선영/제작 히든윌스/기획 카카오페이지, KBS) 측이 윤호의 촬영 스틸을 첫 공개해 이목을 끈다.

공개된 스틸 속 윤호는 멍뭍미가 뽀여져 나오는 훈훈한 비주얼로 눈길을 끈다. 새하얀 피부와 복슬복슬한 헤어스타일의 조화가 골든 리트리버를 연상케 하며 미소를 자아낸다. 더욱이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 채

스윗하게 인사를 전하는 윤호의 모습이 '남친돌' 수식어를 자동으로 떠오르게 한다.

이에 더해 윤호는 '본투비 청량' 면모로 관심을 높인다. 흰색 티셔츠만 걸치고 완벽한 비주얼이 두 눈을 환하게 밝히는 가운데, 무대를 누비며 소년미와 남성미를 오가는 매력을 뽐내며 윤호의 모습이 팬심을 달아오르게 한다. 특히 그의 상큼한 미소가 강력한 청량감을 선사하며 여심을 더욱 떨리게 한다. 이에 스파클링의 센터 유진으로 합류한 윤호의 한결 없는 매력과 활약에 기대감이 한껏 치솟는다.

KBS '이미테이션' 제작진은 "윤호는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끊임 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첫 연기 도전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유진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 감탄을 자아냈다"면서, "스파클링의 센터 유진으로 분해 에이티즈(ATEEZ)에서와는 또 다른 매력을 폭발시킬 윤호와 드라마 '이미테이션'에 많은 기대부드라다"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페이지 일작 웹툰 '이미테이션'은 2014년 첫 연재 이후 웹툰 누적 조회수 4.6억뷰 돌파, 카카오페이지 구독자 390만 명 돌파, 카카오페이지 최대 팬덤 IP 누적 댓글 60만 개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글로벌 K-웹툰으로 북미는 물론 일본, 중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에서도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톱스타' 라리마, '완성형 아이돌' 샬스, '성정형 아이돌' 티파티, '열정형 아이돌' 스파클링 등 '이미테이션'의 새로운 세계관이 예비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또한 이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제작진으로 '인인사 관 구해령', '솔로몬의 위증'을 연출한 한현희 감독과 김민정, 최선영 작가의 만남이 이뤄져 기대를 높인다.

KBS 새 드라마 '이미테이션'은 동명의 카카오페이지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아이돌 100만 연애고시 시대에 맞춰 진짜를 꿈꾸는 모든 별들을 응원하는 대한민국 아이돌 헌정서. 오는 5월 7일(금) 밤 11시 20분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KBO 리그 대표 수호신 삼성 오승환 역대 최초 통산 300세이브 달성 눈앞

삼성 오승환이 KBO 리그 역대 최초로 300세이브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타공인 KBO 리그의 대표 마무리 투수인 오승환은 통산 최다 세이브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300세이브 달성 시 또 하나의 굵직한 기록을 만들어낸다.

2005년 4월 27일 대구 LG전에서 첫 세이브를 올린 오승환은, 이후 KBO 리그 세이브 관련 기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2006, 2011년 각각 47개의 세이브를 기록한 오승환은 KBO 리그 한 시즌 최다 세이브 기록을 두 번이나 이뤄냈다. 오승환은 3번의 40세이브 이상 시즌(06-47개, 07-40개, 11-47개)을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5차례(06, 07, 08, 11, 12)나 시즌 세이브 1위에

오르며 KBO 리그 최다 세이브 부문 타이틀 홀더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연속 경기 세이브 성공 기록 역시 오승환이 가지고 있다. 2011년 7월 5일 문학 SK 전부터 2012년 12월 4일 22일 정주 한화 전까지 28번의 세이브 상황에 등판해 모두 성공했다. 2위 기록(전 두산 정재훈-15게임 연속)보다 13경기나 더 많은 기록이다.

오승환은 데뷔 후 180경기만인 2007년 9월 18일 광주 KIA전에서 통산 100세이브에 성공했고 4년 뒤 334번째 경기였던 2011년 8월 12일 대구 KIA전에서 200세이브를 달성했다. 각 기록 모두 최소 경기 기록 달성 신기록이었다. 2013년까지 277세이브를 기록

하고 해외 진출을 했던 오승환은 지난 시즌 복귀 후 13일까지 22개의 세이브를 추가해 300세이브까지 1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KBO는 오승환이 300세이브를 달성할 경우 표창규정에 의거해 기념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양주를 바꿔놓은 박성배 감독의 '교감 리더십'

2021시즌 양주시민축구단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박성배 감독은 선수들과의 교감을 강조했다.

K3리그 양주시민축구단은 14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4리그 포천시민축구단과의 2021 하나은행 FA CUP 3라운드 경기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리그에서 경기당 3.25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포천의 공격을 잘 막아낸 양주는 후반 22분 황정현의 골과 후반 28분 김경훈의 골로 승리를 가져왔다.

박성배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홈경기 환경에 익숙한 포천 선수들이 빠르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 그에 비해 우리는 낯선 환경이었고 주말에 리그에서 겪은 패배로 분위기도 가라앉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교감이라고 생각했다. 코치진은 선수들을 믿었고 선수들도 코치진을 믿고 함께 해보자고 했다. 전반전에는 고전했지만 고비를 잘 넘겨서 좋은 결과가 찾아온 것 같다"고 밝혔다.

양주시민축구단은 2007년에 창단된 팀이지만 이제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불과 1년 전인 2020시즌만 해도 K3리그 13위를 기록하며 K4리그 강등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 K3리그 개막 후 초반 세 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리그 1위에 올랐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4라운드에서 화성FC에게 패배하며 리그 3위로 내려왔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이었다. 올 시즌 부임한 박성배 감독의 역할이 컸다.



박성배 감독이 양주에 부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교감'이었다. 그는 "양주에 처음 왔을 때 선수들 마인드부터 주변 환경까지 전부 어렵고 낯설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선수들과의 교감이 먼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고 선수들의 마음도 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먼저 집중했다. 마음이 통한 건지 선수들이 다 함께 뛰는 느낌이 들었고 결과가 따라오게 됐다"고 말했다.

완벽달태한 양주는 FA컵 4라운드(16강) 진출에 성공했다. 구단 최고 성적이다. 양주에게 무엇보다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은 다음 4라운드 상대인 전북현대였다. 박성배 감독은 "경기 전부터 선수들과 4라운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경기에서 이기면 전북이라는 아시아 리딩 클럽과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걸 일생일대 한 번

울까 말까 하는 기회다. 선수들도 그 기회를 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양주시민축구단은 지난 11일 리그 경기를 치른 후 단 이틀간의 휴식만을 가지고 곧바로 FA컵 경기를 치렀다. 박성배 감독은 "오는 토요일에도 경기가 있다. 체력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전복을 꼭 만나고 싶어서 로테이션도 돌리지 않고 전력으로 나섰다. 선수들이 FA컵이라는 큰 대회를 발판으로 상위 무대로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양주는 다음달 26일 고대하던 전북과 맞대결을 치른다. 박성배 감독은 "우리는 도전자 아닌 도전자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 욕심이 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16강 경기를 즐기면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순희/기자

'서울더비 결승골' 레안드로 "역사적인 골, 동료들 덕분에 가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역사적인 서울더비에서 서울이랜드의 외국인 선수 레안드로가 결승골로 이름을 남겼다.

서울이랜드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1 하나은행 FA CUP 3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40분 레안드로의 헤더골에 힘입어 FC서울을 1-0으로 꺾고 FA컵 16강에 진출했다. 서울이랜드는 2014년 창단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서울더비'에서 FC서울을 꺾었고, 레안드로는 역사적인 승부에서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특점이 터지지 않는 답답한 경기 흐름 속에 서울이랜드의 정정용 감독은 후반 25분 레안드로를 투입했다. 레안드로는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진환이 헤더로 살짝 앞으로 넘긴 것을 레안드로가 집중력을 발휘해 헤더로 연결하며 결승골을 넣었다.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레안드로는 "역사적인 서울더비에서 골을 넣어 기쁘다. 동료들과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함께 뛰는 선수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어 그는 "리그와 병행하는 상황 속 어려운 경기였고, 또 중요한 경기였다. 충남아산과의 리그 경기에서 첫 패배를 당해 분위기 반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했다"며 이번 경기 승리의 중요성을 말했다.

레안드로는 FC서울을 상대로 결승



골을 넣으며 자신감도 얻었다. "뛰어난 K리그1의 선수들을 상대한 경험을 토대로 리그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리그에서의 활약을 다짐했다.

정정용 감독은 FA컵 우승을 통한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레안드로는 "감독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승리를 위해 노

력해야 한다. 축구 선수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더비 승리의 기쁨도 잠시, 레안드로는 벌써 다음 경기를 생각했다. 그는 "오늘 경기도 이제 지나간 경기다. 대전과의 리그 경기를 준비해야 한다"며 인터뷰장을 빠져나갔다.

정동희/기자

KPGA 구자철 회장, 개막전 찾아 현장 상황 점검 및 선수들 격려

(사)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구자철 회장이 2021 시즌 KPGA 코리아 개막전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총상금 7억원, 우승상금 1억 4천만원)'이 열리고 있는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오크밸리 컨트리클럽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15일 아침 6시 대회장에 도착한 구자철 회장은 대회 운영 및 방역 체계 등 여러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한 뒤 1번홀(파4)과 10번홀(파4) 티잉 그라운드에서 출전 선수들과 인사를 나누며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자철 회장은 "선수들이 2021 시즌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한 것 같다. 다들 활력 넘치는 모습이다"라며 "그런 만큼 개막전 '제16회 DB손해보험 프로미 오픈'의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열띤 경쟁이 예고된다. 선수들은 최고의 플레이를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05년부터 16회째 KPGA 코리아투어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며 한국프로골프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는 DB손해보험 임직원분들과 최고의 대회 코스를 제공해주신 오크밸리 컨트리클럽 관계자 분들께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고 이야기했다. 또한 구자철 회장은 "KPGA 코리아투어를 응원해 주시는 팬 분들께서도 우리 선수들의 다이내믹한 플레이를 마음껏 즐겨 주시기 바란다"며 "올 한 해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자철 회장은 취임 첫 해인 2020년 KPGA 코리아투어가 열린 모든 대회의 대회장을 방문하여 출전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을 시도하며 KPGA를 이끌어 나가는 수장으로서 진면목을 보여준 바 있다.

최재은/기자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이끌어왔습니다
내일의 에너지를 주도해가겠습니다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소

도심 속 조용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열발전소(추진)

비화산지역에서 24시간 운전가능한
지열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주

★★★★★
**광명시,
 2020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시재생 뉴딜 우수 지자체’
 심포지엄 추천!

문화매일 창간 12주년을
 축하합니다.

